



[종합] 쏟아지는 보험 매출 눈독들이는 금융지주 'M&A 큰장' 06



Economy

↑ 코스피 2513.28 (+15.76)	↑ 코스닥 839.51 (+11.48)
↑ 금리 (미국 기준) 2.14 (+0.04)	↑ 환율 (원/달러) 1066.00 (+3.30) (8일)

| CES 2018 | 삼성 '퍼스트 룩 2018'

극장의 화질, TV에... CES 흔든 '스크린 혁명'



마이크로 LED 기술 적용 모듈러 TV '더 월' 첫 공개 베젤 완전히 없애 조립가능 연내 상용화해 일반 판매도

"TV는 사용자가 집안의 스크린에 기대하는 모든 요구를 담아 내 '일상 생활의 중심(The Center of Everyday Life)'이 돼야 합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한중희 사장은 7일(현지 시간) CES 2018 개막에 앞서 미국 라스베이거스 엔클레이브 컨벤션센터에서 '삼성 퍼스트 룩 2018' 행사를 열고, 이 같은 삼성 전자 미래 스크린 방향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8면>

한 사장은 "앞으로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다른 스마트 기기들과 간편하게 연결돼 일상생활에 가치를 더하는 스크린, 설치 공간이나 크기에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확장 가능한 스크린을 구현해 TV 이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146형 모듈러 TV '더 월'에 사용된 웨이퍼에 LED를 생산해 기판에 붙인 것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정은미 기자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146형 모듈러 TV '더 월(The Wall)'과 'AI 고화질 변환 기술'이 탑재된 85형 8K QLED TV를 공개하며, 세계 300여명의 취재진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된 146형 모듈러 TV 더 월은 삼성 전자 LED·반도체 기술과 대만의 마이크로 LED 업체인 플레이나이트라이드사의 기술력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더 월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LED를 이용해 백라이트는 물론 컬러필터까지 없애 LE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한중희 사장이 '삼성 퍼스트 룩 2018' 행사장에서 마이크로LED 기술기반으로 만든 146형 세계최초 모듈러 TV '더 월'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D 자체가 광원이 되는 '자발광 TV'다. 모듈러 방식으로 소비자는 기호에 따라 테두리(베젤)를 완전히 없애고 스크린 사이즈와 형태를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다. 화질뿐만 아니라 발광효율·광원수명·소비전력 등 내구성·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 사장은 행사 후 이어진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더 월에 대해 "TV 컬러필터는 화질 재생에 제한적 요소가 많다. 하지만 그걸 없애려면 자발광이 필수"라며 "롯데시네마에서 선보이

고 있는 (시네마LED의) 극장 화질을 TV로 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연내 상용화해 일반에도 판매할 계획이다. 높은 가격을 예상하는 기자들과 달리 한 사장은 양산이 본격화되면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웨이퍼의 인치가 높아질수록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며 "같은 웨이퍼 안에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격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로LED 방식은

오히려 작은 크기의 화면 구현이 더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향후 시네마LED처럼 더 큰 화면을 만드는데 마이크로LED 기술을 활용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을 적용해 저해상도 콘텐츠를 8K 수준 고화질로 변환해 주는 2018년형 8K QLED TV 85형도 선보였다. 이 제품은 TV가 '인공지능(AI) 고화질 변환 기술'로 저해도 영상을 밝기·블랙·변질 등을 보정해 고화질 영상으로 변환해준다. TV 시장이 급속히 대형화되는 반면 UHD급 콘텐츠 시장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원본 화질에 상관없이 2018년형 8K QLED TV로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데이브 다스 상무는 "삼성전자의 AI 고화질 변환 기술로 소비자들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 TV 등에 관계 없이 저해상도의 영상도 고화질로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18년 QLED TV에 대해 그는 "지난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삼성 디바이스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서 생활 편리성을 높였다는 것"이라며 "삼성 IoT 서비스용 클라우드를 '스마트싱스'로 통합해 연결성을 확대하고 연결된 IoT 기기들을 스마트싱스 앱 하나로 간단하게 연동·제어할 수 있도록 해 오는 3월 런칭에 맞춰 파워풀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사장은 "삼성전자는 앞으로 TV 시장을 QLED와 마이크로LED를 두 트랙으로 가져갈 것"이라며 "LCD TV의 경우 사이즈를 키우는 게 비용이나 생산수율 등에서 한계가 있지만 마이크로LED TV는 모듈러를 통해 이어 붙이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가상통화거래소 서비스 중단도 검토”

최종구 금융위장 투기 경고 가상화폐제공 6곳 현장 점검 은행 불법유통 방지역할 못해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식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경고를 울렸다. 가격 급등세는 물론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한·국민·우리·산업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 효과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에 대한 비판에도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22일부터 시스템이 마련된 은행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92만500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시각 세계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홍콩 비트파이넥스에서는 1만 5871달러(원화 1692만원)를 기록했다. 국내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노노갈등으로 번지는 파리바게뜨 사태 해피파트너즈 노조 “자회사 전환 반대”

(가맹본부-점주-협력사 합작사)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권고로 촉발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노사 갈등에서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정한 '해피파트너즈' 노조 전진욱 수석부위원장은 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3자 합작법인을 본사 자회사로 바꾸기 위해 지분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계열은 4500명의 제조기자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없애고 다시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계열은 본사가 지분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지분 구조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계열 노조와는 별개의 노조다. 현재 조합원 수가 700명을 넘어섰으며 조합원 대부분은 고용부의 본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이다.



파리바게뜨 매장 /SPC그룹

앞서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한 과태료 납부 시한을 앞두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시한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안을 놓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노총 계열 노조는 직접고용을 고수했지만 한국노총은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차선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은 합작법인을 자회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본사의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전 수석부위원장은 "(가맹본부가) 회사에 몸담고 있는 제조기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들었어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행태를 보면 다수의 제조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점포를 운영해야 제조기사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더군다나 양대노총 요구대로 협력업체들이 배제된다면 제조기사 외에 다른 근로자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누가 책임지냐"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늘 '위안부합의' 후속조치 발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9일 오후 2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안부 검토 태스크포스(TF)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위안부 합의가 내용상·절차상으로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사 합의의 재협상·파기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일본 아베 내각의 입장에 비춰 볼 때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국가간 합의를 선불리 파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처리, 10억엔 반환 여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연합뉴스

스마트폰 전쟁, 이젠 사운드로 승부

삼성전자 '갤럭시8 시리즈' 최신 운영체제 순차 업데이트 입체음향 돌비 애트모스 적용

LG전자도 'V시리즈' 통해 멀티미디어 특화 기능 선보여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 중인 스마트폰 업계에 음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달 말부터 갤럭시S8, 갤럭시S8 플러스, 갤럭시노트8 등에 최신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8.0(오레오) 업데이트를 순차 적용한다.

미국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에 유출된 갤럭시S8 시리즈와 갤럭시노트8용 오레오8 업데이트에는 입체음향시스템 돌비 애트모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돌비 애트모스는 음악 장르에 따라 저음을 강조하거나 고음을 강조하는 이퀄라이저(EQ) 설정과 서라운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갤럭시S8, 갤럭시노트8에 적용되는 돌비 애트모스는 자동, 동영상, 음악, 음성 등 4개 사전 설정이 가능하며 EQ설정과 서라운드 애플리케이션을 미세하게 조정해 사용자 취향에 맞출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미세 음향설정이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 트렌드가



LG전자 V30에 적용된 사운드 프리셋과 디지털 필터 기능. /LG전자

화면 크기와 화질 경쟁에 이어 음향 경쟁으로 변화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대화면과 화질 경쟁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자사 스마트폰에 18.5:9 화면비의 인티니티 디스플레이를 도입했다. LG전자 역시 스마트폰에 18:9 화면비의 풀비전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풀비전 디스플레이는 베젤을 줄여 스마트폰 전체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화면 크기는 키우는 기술이다. 덕분에 사용자들은 손 안에 꼭 들어오는 스마트폰에서 시원한 화면으로 다양한 크기의 영상 콘텐츠를 몰입감 넘치도록 즐기게 됐다.

하반기에는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에 OLED 디스플레이가 도입됐다. 이전부터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던 삼성전자에 이어 LG

전자도 화질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OLED 디스플레이는 LCD 디스플레이보다 화질과 광시야각, 색 표현력, 명암비 등이 뛰어나다.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디스플레이의 화소 크기가 작아지는데,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는 화소가 작아질수록 개별 화소 밝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OLED 디스플레이는 스스로 빛을 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고 화질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고 화질이 개선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음향으로 옮겨갔다. 영화와 같은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볼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음향 성능이 아쉬움으로 변해간 것.

이러한 요구에 먼저 대응한 것은 LG전자다. LG전자는 멀티미디어 기능에 특화된 V시리즈를 선보여왔다. V30은 싱클 DAC 대비 잡음을 최대 50% 줄여주는 쿼드 DAC를

탑재했고 오디오 명가 뱅앤올룹슨(B&O)의 튜닝을 거쳤다. 사운드 프리셋, 디지털 필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터치 한 번으로 개인 취향과 음악 특징에 맞춰 듣고 음악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색만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영상 콘텐츠나 VR 콘텐츠를 즐길 때 몰입감과 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스마트폰 최초로 저용량 하이파이 스트리밍 규격 MQA도 지원해 사용자들이 부담없이 고품질 음원을 즐기도록 했다.

음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오레오 업데이트로 스마트폰 시장 음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폰에서도 이러한 기능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향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갖춰져야 충분한 성능을 누릴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존 출시 제품의 음향 성능을 강화한 만큼 올해 출시되는 갤럭시S9 등에는 관련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멀티미디어 특화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음질에서 우위를 점해온 LG전자도 강력한 한 방을 위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가계·중소대출 더 어려워진다 은행들 1분기 심사 더 옥죄릴 듯

한은, 국내 은행 대출태도지수 -18 기록

올 1분기 가계와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여신심사 강화 정책으로 앞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태도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8을 기록했다. 전분기 -8 대비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대출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의 대출태도 서베이는 국내 199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신용 위험, 대출 수요 등을 보여준다. 대출태도지수가 양(+)이면 대출심사 완화를, 음(-)이면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 3에서 0으로 소폭 강화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3에서 -7로 대폭 강화됐다. 당국이 오는 3월 도입 의사를 밝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관리대상 업종 선정과 업종별 대출한도 설정,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시 이자상환비율(RTI)를 고려한 여신심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 역시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중부채상환비율(DTI)과 1분기 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에 따라 전분기 -27에서 -30으로 푹 떨어졌다. 아울러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대출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이노비즈기업, 8년간 27만개 일자리 창출 성과

지난해만 3만5660개 만들어 2022년까지 100만개 목표

이노비즈기업들이 최근 8년간 27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들이 지난해 총 3만566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비즈 기업들은 2010년부터 8년 연속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기간 창출한 일자리 수만 총 26만6839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확인된 기업 중 5인 미만 등을 제외한 3만774개사(이노비즈기업 1만6436개, 예비 이노비즈기업 1만431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가장 많은 2만6783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특히 업력 10년 이상 기업이 2만6983개를, 50인 이상 고용규모를 갖춘 기업이 2만680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업력과 고용규모가 클수록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았다고 파악됐다.

이노비즈기업은 국제적 혁신기준(Oslo Manual)에 따라 중소기업 업무에서 인증한 업력 3년 이상의 기

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제도 도입 초 기였던 2011년 당시 1000개에서 지금은 1만8000여 개로 크게 늘었다.

특히 협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기관에 걸맞게 지난해 '5개년 전략체계'를 수립,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2만2000여개까지 인증 기업 숫자를 늘리고, 이들 기업이 총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또 현재 각 사당 평균 8.7명, 인증 기업 전체적으로 약 15만4000명 가량의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을 2022년까지 20만명, 2027년까지 27만명까지 늘린다는 포부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지난

한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으로 분회 및 전국 9개 지회가 총 3600여 명의 청년일자리 창출했으며, 특히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 분회 기준으로는 총 2219명의 청년층 채용 연계를 통해 전국 운영기관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이노비즈기업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과 지원 활동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1면 '노노갈등으로 번지는 파리바게뜨...'서 계속

시민단체 "제빵사 고용 자회사, 협력사 빼야"

해피파트너즈 노조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자회사 통한 고용에 반대하며 이번 사태는 민노총과 한노총의 의견 차에 이어 해피파트너즈 노조까지 3개 노조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시민사회단체가 제빵사를 고용할 자회사의 지분·인적 구성에서 협력업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참여연대 등을 구성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SPC그룹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 지분을 빼라고 요구했다.

해피파트너즈 이사로 등재됐거나 직원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사장과 관리자를 배제하고, 해피파트너즈라는 상호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어 "본사 요구대로 자회사가 제빵사를 고용하더라도 실질사용자인 본사가 제빵기사 고용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인용 기자

하청업체, 대기업에 원가인상부담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5개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모두 5종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되는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

받기를 원하므로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 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납품업체 단체 등과 협력해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가상화폐 거래소, 하루 수수료만 35.5억 '투자 광풍'

거래대금 코스닥 앞질러... 접속폭주땀 전산마비 우려

(일 평균)

업비트 하루 거래대금 7조 달해
수수료 정책 마땅한 기준 없어

사이트 마비·해킹 공격 등에 노출
20일 신규 허용엔 접속 과다 위험



8일 서울 여의도의 코인원 블록스를 찾은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구서윤 인턴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으로 거래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가상화폐거래소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닥시장을 앞지르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거래소는 지난해 이익이 중대형 증권사를 앞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는 사실상 '무풍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정책에 대한 기준도 없으며 거래소 파산 혹은 해킹에도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8일 가상화폐 전문거래업체 코인엑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2480만원대까지 올라섰다. 이는 세계 평균 가격인 1657만원보다 약 50% 비싼 수준이다. 그만큼 국내 비트코인 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방증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하루 거래대금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3조6900억원)을 가뿐히 뛰어 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이익은 이미 대형 증권사의 실적을 뛰어넘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64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빗썸을 운영 중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공개한 자료에 따른 수치다. 빗썸은 올해(2018년) 영업이익은 32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36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이 국내 초대형 증권사와 어깨를 나란히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수료 비율은 '엇장수 마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섭게 몸집을 키워나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의 수수료에 대해 우려감을 표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매매 수수료는 최대 0.15%에 달한다. 이는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다. 즉, 1000만원이 거래되면 거래소는 1만5000원 씩 총 3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또 1000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할 때도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은 업비트의

하루 수수료수익만 35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거래소 수수료 정책 상품권이 투자자의 단기 매매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빗썸은 금액대별로 다양한 수수료 상품권을 내놨다. 한 예로 37만5000원짜리 수수료 상품권을 구매하면 5억원 내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 수수료보다 50% 저렴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한 달이라는 상품권의 사용기한이다. 즉, 한 달 내 5억원어치의 매매 거래를 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지난 12월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출금 수수료를 잇따라 인상하는 일이 있었다. 거래소 측은 "비트코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송금이 지연되거나 미승인되는 사례가 늘어 부득이하게 출금 수수료를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논리라면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특성상 거래가

많아질수록 검증해야하는 거래내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태위태한 거래 시스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거세지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가 마비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새로 오픈한 거래소 코미드는 첫 날부터 거래량 폭증으로 마비됐다.

이같은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에는 거래소 유빗이 해킹 공격을 받아 파산했다. 그리고 빗썸, 업비트 역시 거래량이 폭증하자 거래가 마비되거나, 시세반영이 지연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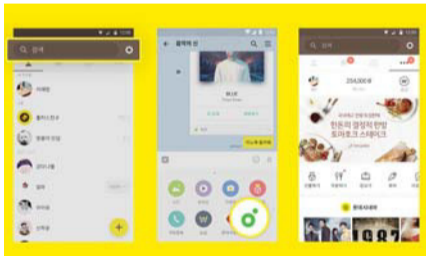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은 과열되는데 거래소 시스템이 미비한 것 같아 우려된다"며 "오는 20일 신규계좌 허용이 시작되면 이들 거래소가 접속량과 거래량을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민방위 통지서·지방세 내역 등 확인

AI 만난 '카톡' 거듭 진화 소비자 생활에 들어온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상반기 '언어인식' 챗봇 서비스



지난 3일 업데이트 한 카카오톡. /카카오

대학생 이지연(24)씨는 지인들의 생일이 돌아오면 고민이 깊다. 거리가 멀어 평소에 잘 만나지 않아 생일에 뭘 챙겨줄지부터 따로 선물을 전해줄 시간을 빼는 것도 일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최근 이러한 고민을 카카오톡(카톡)으로 해결했다.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탭에 들어가면, 생일, 생애선물, 특별한선물 등 테마별로 지인 '맞춤형' 선물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직접 만나서 주지 않고도 카카오톡으로 바로 전달한 뒤 수신자가 주소만 입력하면 배달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

특을 바탕으로 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 내 본인인증 및 전자문서 서명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 취급 대상이 정부·공공기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어 인식이 가능한 대화형 채팅 로봇(챗봇) 서비스도 상반기에 내부 서비스 위주로 출시되고, 향후 씨드파티까지 오픈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반기 중 내부에서 먼저 CBT 개념으로 챗봇 서비스를 선보이고 상반기 말께 외부 사업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주문하기'에서 챗봇이 활용되면, "피자 추천해줘" "메뉴 보여줘" 등의 문자 대화를 통해 카톡으로 메뉴를 보고 추천받을 수 있다.

카톡에서 챗봇이 상용화되면 카카오톡의 AI 스피커 '미니'에도 음성형, 문자형 두 트랙으로 도입될 수 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자사 블로그 서비스인 '브런치'를 통해 "비서 같은 카카오톡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CLFA

"벌어도 벌어도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은행 대출이 힘드신가요?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시나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생계형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꿈을 대부금융에서 찾아드립니다!

NO.1

한국대부금융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TEL 02) 3487-5800 www.clfa.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中企 정규직이면 누구나

정부, 수혜대상 확대... 5만명 목표
지난해보다 참여기업 임금요건 완화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 5만 명을 목표로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 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본 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5만 1700명이 취업인턴 등의 경로를 통해 총 3만8092명이 가입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는 5만 명 지원을 목표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기존 참여경로를 폐지해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취

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워크넷 등 정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월 157만4000원(시급 7530원) 수준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48만7000원(시급 647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신규 선정된 전국 146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며, 청약이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적립·관리 및 만기공제금 정산·지급 업무가 진행

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사업 시행 2년차에 접어들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명칭이 길고 ‘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과 혼동된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부르기 편한 ‘별칭(브랜드 네임)’을 공모한다.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수상자들에게는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례회동서 개헌·정개특위 구성 합의

개헌 시기·내용에선 여전히 입장차

여야는 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내일(9일) 오전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내일이면 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로써 그동안 잠처럼 진행되지 못하던 개헌 논의는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다시금 물꼬를 트게 됐다.

다만 여야는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 개헌안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위원들(명단)을 제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

하게 된다면 상당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만드는 특위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며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께 시원한 사회변화를 만드는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올해 국회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 개헌’”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개헌·정개 특위 및 사개특위 등 양 특위가 새해 벽두부터 잘 가동되고 운영돼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개헌 날짜를 잡아,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개헌을 반드시 날짜를 잡고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개헌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남북 고위급회담·신년기자회견 등

文대통령, 올해 첫 ‘슈퍼워크’ 맞았다

칼둔 UAE 행정청장과 만남 가능성
16일 중소기업계 만찬 간담회 진행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불거진 국내외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이번주 순차적으로 분기점을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 들어 처음으로 ‘슈퍼워크’를 맞는 셈이다.

당장 9일엔 현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 여 만인 남북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

또 1박2일 일정으로 8일 한국을 찾은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칼리와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문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정국 주요 운영방향을 밝힌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 저녁엔 중소기업 유관 단체장들과 만찬을 하며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교감도 나눌 계획이다.

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남북은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급회담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에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통화를 하고 실무를 논의했다.

또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회담 대책은 차관 주재 전략기획단 회의, 장관 주재 전략회의 등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수립했으며, 이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회담 대표 임명도 통일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한 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했고, 대북 통보조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은 2월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참가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굳게 닫힌 지 2년 가까이 된 개성공단 재개 등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도 문 대통령과 칼둔 청장의 만남이 현실화될 경우 어느 정도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 실장의 지난달 방문이 박근혜 정부 때의 소원해진 관계 회복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전 보수정권에서 맺은 군사협력을 수정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양국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說)까지 각종 의혹이 쏟아진 상황이다.

칼둔 청장은 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를 접견할 당시 배석한 왕세제의 최측근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10일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여민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이 기자들을 직접 지명해 질문을 듣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대화가 오갈 전망이다.

‘슈퍼워크’가 끝나는 16일엔 청와대로 중소기업계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임명된 홍종학 중소기업벤처기부 장관도 동석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자유한국당 ‘보수 텃밭’ 대구·경북서 결집 행보 첫 걸음

대구서 전국 순회 신년인사회 시작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 보수 결집 행보의 첫 걸음을 뒀다.

홍준표 대표는 주요 당직자·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등 2000여명과 함께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전국 순회 ‘2018년 자유한국당 신년인사회’를 시작했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 보수주의’ 선언과 지방선거 필승결의문을 채택했다.

홍 대표는 “대구가 흔들리면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6월 지방선거는 단순히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언론에 공개된 헌법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남북 대화도 북핵 제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핵을 동결하고 현상 유지하고 평화를 구걸해서 시간만 보내 북핵 완성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60년 전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한 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선택해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 문턱까지 왔지만, 당시 아시아 최고 부자 나라였던 버마는 내일이 쿠데타로 국가사회주의를 택하면서 최

빈국으로 전락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홍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강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된 보수 진영의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국 순회 신년인사회의 첫 행선지로 TK지역을 택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로 홍 대표는 지난 5일 대구 북구를 당협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과 관련해 “내가 가야 권세가 된다”며 ‘TK 사수’와 TK 중심의 보수 결집을 통한 이른바 ‘동남풍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창원 기자

방문진 이사에 환경운동가 지영선 선임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공식이 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에 지영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선임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에 지씨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지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인 고영주 전 이사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12일까지다.

지 이사는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을 거쳐 한겨레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주보스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를 지냈으며, 이후 환경운동연합 공동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이 됐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비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임명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고영주 전 이사 해임을 의결한 바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대출규제에 세금폭탄... 부동산 당분간 '쉬는 것도' 투자

재테크가 **희망**이다

③ 부동산 전망과 투자전략

정부 규제에도 '강남불패' 여전해 올해 44만 가구 입주 '최대 규모'

수익형부동산 규제책 본격 시행에 투자 전망 '흐림'... 거래절벽 우려

올해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집값 안정대책은 물론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으로 올해 부동산 수요 위축과 거래 감소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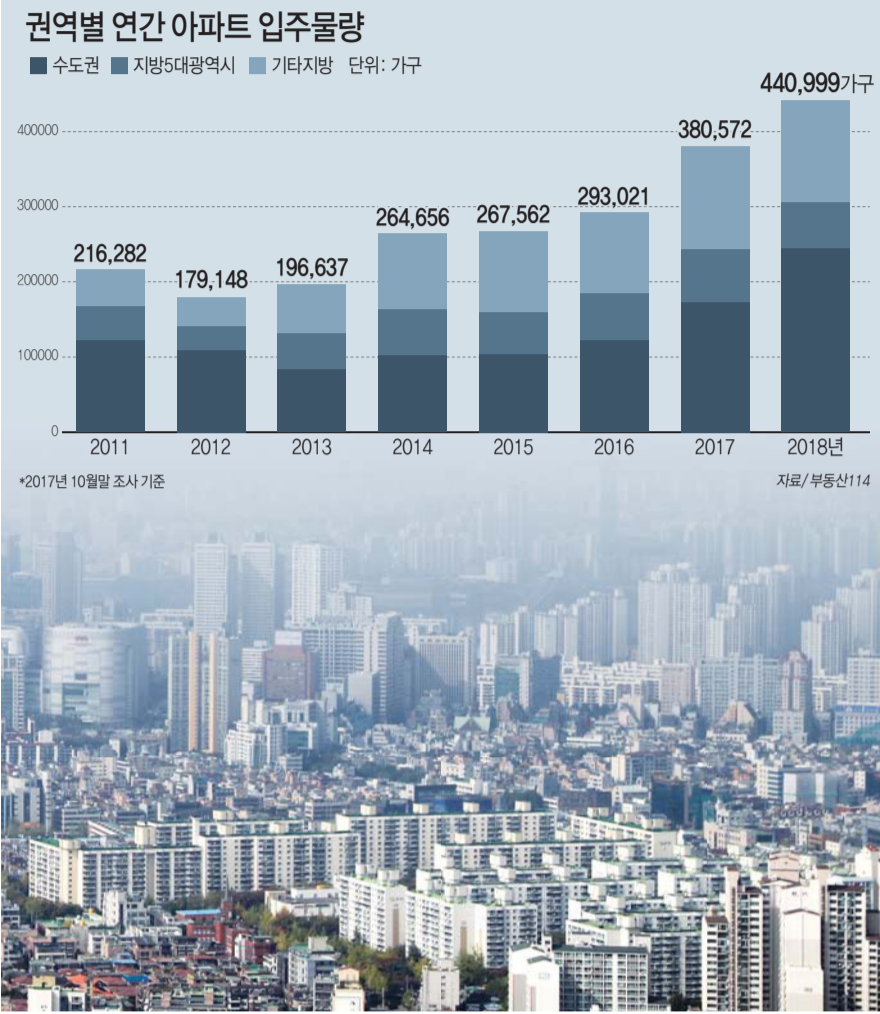
게다가 미국발 금리 인상과 올 1월 31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제도를 개선한 신DTI가 시행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 여기에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작년 예고한 규제가 대부분 시행된다.

주택의 경우 입주량 증가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으로 전반적인 위축 속 국지적인 양극화,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상품 역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파트 청약시장 차별화 예상

주택 수요자들은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 작년에 단기 급등했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신규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은 가격 약세가 예상된다. 전세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세,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인근 지역으로 이주수요에 따른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수요분산과 몇 년간 이어온 전세입자의 매매전환 등을 고려하면 전세수요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입주물량이 많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경기·인천의 일부지역은공급물량 증가가 이어져 국지적인 가격조정, 지방·광역시 역시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계속돼 전셋값 약세



가 전망된다. 더욱이 세종, 충청, 경상권 아파트 전세시장은 지역 기반산업의 침체와 맞물리며 역전세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작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크게 뛰었다. 작년 말까지 유예가 적용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려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선정 및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6·2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서울, 세종 등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TI 강화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이후 가파른 상승세가 멈췄다.

올해 아파트 시장은 수요억제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매매가격 하향조정과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충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서울과 신도시 등 서울 인접 지역은 탄탄한 실수요와 신규 주택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시그널을 내보이며 다주택자를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방광역시는 규제 및 공급과잉이 맞물려 하락 안정세가 전망된다.

◆올 입주아파트 44만가구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44만여 가구로 입주물량이 집계된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세종은 재고 아파트 대비 무려 18%에 해당하는 1만4000여가구, 충북은 기존 아파트의 7.44% 물량인 2만2488가구가 입주한다. 이어 경남 6.39%, 경기 6.22%, 강원 6.04%의 기존 아파트 대비 신규 입주 아파트 비율을 보이고 있어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특히 전세의 경우 경기도 화성, 김포, 시흥 등 수도권 외곽지역은 공급과잉으로 약세가 예상된다. 반면 대구, 부산, 대전 등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는 전셋값이 하락하고 세종, 충청, 경상은 입주물량이 많아 역전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보합 속 서울은 강보합, 경기 등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며 "입주물량 부담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의 분양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는 커졌으나,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예비 청약자는 무주택 여부, 대출 가능 금액, 청약 1순위 요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도 '글썸'

올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 대세적이다. 오피스텔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금리 인상 예고, 입주물량 급증 등 '트리플 악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오피스텔 입주물량이 급증해 일부 지역은 '입주 쇼크'가 올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함영진 센터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지역에 입주 쇼크가 올 수 있어 선별적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상가 분양시장도 올해 부동산 임대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 투자 리스크

를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10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31만17건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는 전년 25만7877건 대비 26% 증가된 수치다. 상가 투자의 경우 단지 내 상가의 인기가 높았다.

문제는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 추이다. 오피스텔은 이미 공급과잉을 견디지 못하고 임대수익률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89%로 2016년 5.29%, 2015년 5.48%에 비해 낮아졌다.

최근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매가격이 오르고(2017년 상반기 0.56% 상승, 부동산114 자료) 오피스텔의 입주물량도 늘었다. 다만 임대료가 매매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익률 하락의 원인이 됐다. 더군다나 2011년 6월 이후 요지부동이던 기준금리가 1.50%로 상승(0.25% ↑)했다. 그동안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 턱을 뚫던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올해는 수익형부동산 규제책이 본격 시행된다. 당장 1월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20%를 우선 분양해야 하고 신규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오피스텔 규제지역으로는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경기도, 세종시, 과천, 부산 등 대부분의 핵심 지역들이 지정됐으며 정부의 후속조치도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규제지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에는 오피스텔 분양 시 별도의 계약 없이 청약방식을 정할 수 있었으나 1월부터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됐다. 기존 오피스텔 시장에 만연하던 낚시 분양(정식 분양 절차를 밟지 않고 원하는 동호회를 선점해서 계약하는 방식)을 차단한 만큼 투기를 꺾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ING생명... KDB생명... 롯데손보... MG손보

쏟아지는 보험 매물, 눈독 들이는 금융지주... M&A 큰 장

KB금융, ING생명 거액인수 노려
신한금융, 롯데손보 인수 가능성

올해 보험업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다수 보험사가 인수합병(M&A) 시장 매물로 거론되는 가운데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사가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과거 보험사는 비싼 몸값으로 인해 M&A 거래가 다수 불발됐지만 이번에는 매수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업권 재편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올해 그룹 내 취약점으로 꼽히는 KB생명을 보강해 금융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탄탄하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KB생명은 자산규모가 9조원 가량으로 업계 내 하위 수준이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좋은 매물(생보사)을 확보하기 위해 연일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KB금융, ING생명 인수면 업계 5위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경총'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구상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윤 회장은 "시장에서 생명보험 쪽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부분을 보강했으면 한다"며 "보험을 포함한 금융업 보안을 구상 중이고, 국내외에서 좋은 물건이 적당한 가격에 나오면 가능성을 열고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의 해당 발언에 시장에선 KB금융그룹이 또 한 번 ING생명 인수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ING생

명은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지분율 59.15%)인 탓에 언제든지 시장 매물로 나올 수 있고 공교롭게도 MBK파트너스가 ING그룹과의 계약으로 올해까지만 ING생명이란 이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에선 ING생명을 잠재적 매물로 보고 있다.

KB금융은 지난 2012년 ING생명이 시장 매물로 나왔을 때 인수전에 한 차례 참여한 바 있다. KB금융이 자산규모 31조 원가량의 ING생명 인수에 성공할 경우 계열사인 KB생명과 합병을 통해 약 40조 원대 대형 생보사로 재탄생하게 된다. 단숨에 업계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다.

다만 일각에선 ING생명이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높은 인수가로 KB금융이 이 외 다른 매물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 KB금융은 지난 2012년 ING생명 인수전 당시 2조원대의 가격이 부담돼 협상을 포기했다. 시장에선 현재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ING생명 지분가치를 3조원 안팎으로 책정하고 있다. 때

문에 악화된 재정건전성으로 꾸준히 매각설이 나온 KDB생명이 KB금융으로선 차선책으로 꼽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높은 인수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접 생보사 M&A를 거론한 만큼 ING생명이 매물로 나올 경우 KB금융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 없는 신한금융, M&A로 시장 진출 모색

KB금융그룹과 함께 국내 양대 금융지주로 꼽히는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시장에서 롯데손해보험 인수설로 흥역을 치른 바 있다.

롯데손보가 시장 매물로 나온다는 소식에 손보 부문이 부재한 신한금융그룹이 관심을 갖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 신한금융과 롯데손보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 3일 열린 범금융권 신년 인사회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M&A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며 "적당한 매물이 나오면 인수에

뛰어들 의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롯데손보 인수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은 물론 증권, 생명보험, 카드 등 업계 순위권을 다투는 신한금융에 있어 손보사 부재는 금융사업 구상의 난관으로 작용한다. 또 롯데손보로선 롯데그룹이 지주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전환하는데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호텔 롯데이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을 최대 4년 안에 정리해야 하는 등 양측의 이해가 잘 맞아 떨어진다. 롯데그룹으로서도 롯데손보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성으로 업계 하위권을 면치 못해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MG손보가 악화된 재정건전성으로 매각설이 흘러나오면서 신한금융의 또 다른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며 "M&A를 통한 손보 시장 진출이 가장 손쉽다는 점에서 신한금융으로선 보험사 인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제약사 윤리경영은 'A등급', 내부고발 시스템은 '미흡'

1차 평균보다 7점 오른 '777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제약사의 윤리경영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내부 고발 시스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14호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 기업 내부고발 처리절차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 제약산업과 ISO 37001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 항목 등을 점검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은 지난 2016년 10월, 협회 이사장단 18개사를 대상으로

로 첫 시행됐다. 이번에는 33개 이사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결과 이들 기업들의 평균점수는 777점으로 A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평균(18개사, 770점, A등급)

과 비교해 7점 높은 수치다.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대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는 보다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반적으로 1차 분석 이후 CP 전담조직 구성,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강화 등 지속적인 CP 준수를 통해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임윤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기업 내부고발 처리 절차의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고했다. 임 변호사는 내부고발 처리 절차를 통한 원칙적이고 투명한 사건 처리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줄여 역설적으로 내부고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활성화를 위해

선 무엇보다 기업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장은 '제약산업과 ISO 37001'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부패관련 정책흐름과 국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약산업에서 ISO 37001 인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준법경영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ISO 37001이 조직·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기획이사는 윤리경영이란 선진 일류기업으로 가는 길임을 전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전략적 윤리경영의 실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외 보형약가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됐다. 영국 약가제도 연구 TFT는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소 의료기술 평가

와 의약품 가격규제안을 다뤘다. 아울러 의료기술 평가 절차와 실제 의약품 평가 사례를 국내와 비교·분석하고 의약품 가격 규제안의 최신 동향 분석을 통해 신약의 접근성 향상 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약가제도 연구 TFT는 신약과 제네릭의 최신 의약품 가격 결정 제도를 소개하고 의약품 급여와 사회보장제도 조달법, 약제비 총액 관리제를 분석, 국내 약품비 관리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약산업 이슈진단 분야에서는 정유태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가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른 제약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산업 발전방향을 진단했다.

정 대표는 제약산업의 진화로 정책 목표가 다원적 정책 이해의 균형 유지에 있음을 강조하고,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재정 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편의점·주유소 등 최저임금 준수여부 점검 카카오펙 출범 165일 만에 가입자 '500만 명' 돌파

고용노동부, 3개월 간 집중 계도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본격적인 점검활동은 이달 29일부터 3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

해서 진행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전체 경제활동인구 18.0% 해당

카카오뱅크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출범한 지 165일 만이다. 여·수신 규모는 1조원에 육박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오후 3시에 계좌개설 고객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2.84초에 1명, 1시간당 1267명, 하루 평균 3만425명이 카카오뱅크에 가입했다.

하루 최대 가입자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해 7월 28일로 33만5498명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8.0%,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9.7%에 해당한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중은 30대가 34.9%로 가장 높고, 20대는 28.9%, 40대는 24.0%였다. 모바일 금융 소외 계층으로 여겨졌던 중장년층인 50대 이상은 11.9%를 차지했다.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는 전체 계좌개설 고객 중 74.6%에 해당하는 373만명이

신청했다. 이는 2016년 금융권 체크카드 누적 순증 규모 470만장의 80%에 달한다. 가입자 증가와 함께 예·적금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 7일 기준 예·적금 등 수신 규모는 5조1900억원, 여신은 대출 잔액 기준으로 4조7600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1분기 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해외송금은 이용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5개월간 총 7만6500여건이 일어났다.

이용우, 윤호영 공동대표는 "출범 5개월을 갓 지나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기존 은행에서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 전반 진정한 '카뱅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카카오뱅크 가입자 3초에 1명



인간의 능력 **37km/h**



스케이트를 신으면 **54km/h**



썰매를 타면 **143km/h**



스키를 신으면 **162km/h**



스틱으로 때리면 **170km/h**

응원의 힘을 더하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SK이노베이션이
하나된 열정을 응원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공식 정유부문 스폰서

SAMSUNG AI·IoT 혁신제품으로 글로벌 선도기업 '우뚛' LG LG

삼성전자

'삼성 시티' 최대 규모 전시관 구성
'스마트싱스' 전시적 연결성 확대

LG전자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슬로건
썹큐존·V30 체험 부스 등 마련



삼성전자 모델들이 전시장 입구 대형파사드 앞에서 환영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에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대거 선보인다. 이를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 이미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CES는 3900여 기업이 참여하고 150여 국가에서 약 19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CES의 슬로건은 '스마트 시티'다.

◆삼성전자 '삼성 시티' 콘셉트로 미래 라이프 스타일 제시

삼성전자는 CES 2018 슬로건에 맞춰 '삼성 시티'라는 콘셉트 아래 참가 업체 중 가장 넓은 2768㎡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전시관인 삼성 시티에 들어서면 도시의 빌딩을 형상화한 크고 작은 LED 사이니지로 구성된 초대형 파사드가 방문객을 맞는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사적으로 IoT 서비스용 클라우드를 '스마트싱스'로 통합해 연결성을 확대했다. AI 비서 '빅스비'를 가전에서 전장까지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연결된 IoT 기기들을 '스마트싱스 앱' 하나로 간단하게 연동·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들은 빅스비를 중심으로 삼성의 혁신 기술이 자사의 모바일·스마트 TV·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물론 제3자 기기와 앱을 어떻게 연동하고 제어하는지 상황 별로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유튜브를 보다가 집에 들어와서 TV의 큰 화면에서 보고 싶을 때 "Hi Bixby, I'm home, continue playing on TV"와 같은 간단한 명령만 하면 된다.

또한 빅스비는 사용자가 방에서 영화를 보다면 영화 보기에 적합한 조명을 켜고 에어컨 온도를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설정해 준다. 아무도 없는 거실의 전자기기를 꺼 주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IoT 외에도 각 사업 부문의 미래 먹거리가 될 주요 기술들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CES 2018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더 월' 146형은 마이크로 LED를 적용해 컬러필터 없이 삼원색을 표현하는 자발 광 디스플레이이다. 밝기·명암비·색재현력·시야각이 뛰어나고 수명 등 내구성도 우수해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중 최고의 화질을 자랑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한 기업이나 단체에서 회의 시 아이디어 공유와 협업에 도움을 줄 신개념 디지털 플립차트 '삼성 플립'도 공개한다. 이 제품은 CES 기간에 한국 포함 전세계 주요 지역에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 CES 2018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2018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도 CES에서 처음 공개한다. 올해는 기존 제품 대비 개인화 서비스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생활가전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라인업도 강화했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세계적인 셰프들의 인사이트를 반영하고 와이파이 기반의 연결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패키지 '셰프컬렉션 라인업' 4종도 전시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8, 기어 스포츠, 기어 VR, 삼성 HMD 오디세이 등 최신 모바일 제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삼성전자는 모바일·인공지능 시대를 리드할 혁신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신제품들을 거래선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에 전시한다. 이번 CES 2018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새로운 규격의 메모리 제품인 8TB N VME SSD(PM983), 차세대 스마트기기용 프리미엄 모바일 AP '엑시노스 9810', 'ISOCELL' 이미지센서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의 첨단 IT 기술이 하만의 전장 기술을 만나 탄생한 '디지털 콕핏'을 전시한다. 디지털 콕핏에는 차량용 빅스비와 스마트싱스가 적용돼 음성만으로 간편하게 차 안에 있는 에어컨·오디오 음량·조명 등을 조절할 수 있다.



LG전자 모델들이 LG 썹큐 존에서 인공지능 가전들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AI 슬루션 대거 공개

LG전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을 슬로건 아래 2044㎡ 규모의 부스를 준비했다. 특히 인공지능 전시존 'LG 썹큐존'은 LG전자 전체 부스 면적의 1/3을 차지한다.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아우르는 브랜드로 여러 전시 존 가운데 가장 넓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시관 입구에는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246대를 이용해 초대형 올레드 조형물을 구성했다. 길이 16m, 너비 16m, 높이 6m 규모의 올레드 협곡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표현했다.

LG 썹큐 존에서는 거실, 주방, 세탁실 등 소비자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으로 연출해 일상 생활에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세탁실에선 음성인식 트윈워시를 비롯해 건조기, 스타일러 등 의류관리가전들이 서로 연동하면서 의류를 관리하고, 거실에서는 음성인식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질을 서비스하는 식이다.

LG전자는 다양한 TV 신제품도 선보였다. 먼저 썹큐 TV의 경우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화면모드 변경, 채널 변경, 볼륨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또 올해 출시하는 올레드 TV 주

요모델에는 독자 개발한 화질칩 '알파9'을 장착했다. 알파9은 올레드 TV의 성능을 향상시켜 생생하고 현실감 넘치는 화질을 구현한다.

LG전자는 '나노셀' 기술에 '풀 어레이 로컬 디밍' 기술을 더한 '슈퍼울트라HD TV'도 공개했다. 슈퍼울트라HD TV는 약 1나노미터(nm) 크기의 극미세 분자가 색 파장을 정교하게 조정, 보다 많은 색을 한층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전자는 이외에도 냉장고, 세탁기, 오븐, 식기세척기 등 주요 생활가전의 핵심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별도 구성했다. 또 LG전자는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0'의 차별적 강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CES에서는 LG V30의 새로운 색상 라즈베리 로즈 제품을 처음 선보인다.

LG전자는 글로벌 완성차 고객을 대상으로 '이노베이션 파트너'를 테마로 한 비공개 부스도 마련했다.

LG전자는 ▲AV 내비게이션, 중앙디스플레이장치 등 카 인포테인먼트 기기 ▲ADAS 카메라, LCD 계기판 등 자율주행 및 편의장치 등 라이트 솔루션까지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전시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un@



LGDP 한상범 부회장, 개막 앞두고 마지막 현장점검 7일(현지시간)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부회장이 세계 최대 IT(정보 기술)전시회인 'CES 2018' 개막을 앞두고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 마련된 LG디스플레이 고객사 전용 특별 전시관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패밀리허브' 가족 목소리도 구별한다

목소리로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

삼성전자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2018년 더 진화했다.

올해 선보일 패밀리허브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족 구성원에 맞춰 식단을 추천해준다. 또 홈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세탁기·청소기 등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도어센서, 온도조절장치, 조명 등으로 확대해 상상만 하던 미래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삼성전자가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에서 공개하는 2018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2016년 삼성전



자가 업계 최초로 IoT 기술을 접목해 출시한 스마트 가전이다. 2018년 패밀리허브에는 한층 진화된 AI 비서 '빅스비'를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됐다. 소비자는 빅스비를 활용해 음성으로 간편하게 식재료를 등록할 수 있고 유통기한도 자동으로 기록해준다.

또 새롭게 적용된 '화자 구분(Voice ID) 음성인식' 기술은 가족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일정·메모·뉴스·날씨 등의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갤노트8 필기감 주는 '삼성 플립' 공개

소규모 기업회의 문화 트렌드 발맞춰 다양한 통신·데이터 전송 규격 지원

올해 B2B(기업 간 거래) 사업 강화에 나선 삼성전자가 최초로 B2B 디스플레이를 선보인다.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8에서 디지털 플립차트인 '삼성 플립(Samsung Flip)'을 공개한다.

플립차트란 회의에서 의견을 적거나 발표내용을 적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를 의미한다.

삼성 플립은 UHD해상도를 지원하는 55형 크기의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로, 겹모습은 화이트 보드와 비슷하다. 회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기록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룹 커뮤니케이션 툴인 셈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석기 부사장은 "전자 칩판 시장은 성숙된 시장이지만 최근 기업 회의 문화는 팀워크가 강조되면서도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트렌드에 맞춰 개발된 삼성 플립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제품으로 기업의 회의 문화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삼성 플립에는 첨단 터치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돼 '갤럭시 노트8'과 동



삼성전자 모델들이 회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디지털 플립차트 '삼성 플립'을 이용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한 수준의 터치 반응으로 실제 종이에 쓰는 것 같은 필기감을 제공한다. 별도의 전용 펜이 아닌 일반 펜으로 최대 4명까지 동시에 필기할 수 있다.

필기구 종류에 따른 미세한 두께 차이도 인식해 선을 불펜처럼 얇거나 형광펜처럼 두껍게 그릴 수 있고,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지우개로 인식해 특정 부분만 쉽게 지울 수 있다.

삼성 플립은 Wi-Fi·NFC·HDMI·USB 등 다양한 통신·데이터 전송 규격을 지원해 스마트폰·태블릿·PC와 같은 사무용 IT기기와 쉽게 연결해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 회의 결과를 이메일·클라우드·USB 등으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삼성전자는 올해 B2B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전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시장은 B2B 분야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가전사업부는 지난해부터 '시네마 LED'를 론칭하고 영화 스크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으며 올해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으로 진출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B2B 시장을 공략을 위해 지난해 말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CE 복합단지에서 동남아 최대 규모의 B2B 종합전시관을 개관했다. 동남아 시장은 B2B 시장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현대차, 美·中 등 글로벌 잇는 미래혁신 기지 세운다

5곳에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신설
유망 스타트업 발굴·기술 확보

현지 혁신 생태계 긴밀교류 통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 모색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세계 5곳에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센터) 거점을 갖추고 글로벌 혁신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그룹은 8일 "대한민국을 비롯해 매년 수 백, 수 천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 등 5개 도시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미래 핵심 분야 경쟁력 구축을 위해 전략기술 본부를 출범한 바 있다.

◆연내 한국-독일-중국 등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신설

현대차그룹은 아시아-미국-유럽-중국 등 전 세계를 잇는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혁신을 주도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혁신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는 현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이들과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에 나서게 된다. 또 스타트업을 포함해 현지 대학, 전문 연구기관, 정부, 대기업 등 폭넓은 혁신 생태계 구성원들과 긴밀한 교류를 갖고 공동 연구활동을 벌여 신규 비즈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니스 창출을 모색하는 사업 실증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발표된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 중국, 독일에 각각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추가 신설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기존 실리콘밸리 사무소 '현대벤처스'의 위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한 '현대 크래들'을 개소했으며, 올해 초 이스라엘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신규 혁신 거점이 오픈된다.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는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R&D) 거점들과 다양한 혁신 실험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아이템 발굴에서 사업화에 이



현대차그룹 오픈이노베이션 5대 네트워크

/현대차그룹

르기까지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에도 연말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 베이징은 상하이, 선전과 함께 중국의 창업 열기를 주도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 최대 인터넷 업체 바이두가 2000년 스타트업으로 첫발을 내딛은 곳이다. 베이징대학교, 인민대학교 등 유수의 대학들이 위치해 있어 매년 뛰어난 인재들이 대거 유입된다.

베를린 역시 유럽 최대 스타트업 태동 도시로 꼽힌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으로 불리는 베를린은 기회를 찾는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이 창업을 위해 몰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베이징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중국 특화 기술을 확보하고 현지 대형

ICT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 거점으로, 베를린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솔루션 기반의 신사업 기회 확보를 위한 혁신 거점으로 각각 차별화해 육성할 계획이다.

◆美 '현대 크래들' 핵심 역할 수행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현대 크래들'은 다른 혁신 네트워크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들과 차별화된 핵심 역할을 추가로 맡는다. 다양한 스타트업들과의 협업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핵심 분야 개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 전세계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업무도 추진한다.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의 운영 총괄은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가 맡는다. 전략기술본부는 오픈 이노베이션 5대 네트워크 구축을 계기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그룹 전체의 신사업 플랫폼 구축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지역에 오픈 이노베이션 5대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차원"이라며 "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미래 그룹 성장을 이끌 신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 오픈이노베이션센터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창출했다.

크래들은 2005년 설립된 인공지능, 음성인식 전문 기업 사운드하운즈에 자동차입제도는 유일하게 2011년 투자를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2012년부터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동 개발을 추진, 차량용 음악 정보 검색 서비스 '사운드하운드' 등을 개발했다. 그 결과 2014년 현대·기아차 미국 판매 차량에 음악 정보 검색 서비스 '사운드하운드'를 최초로 탑재한 바 있으며 이달 중 국내 출시 예정인 신형 벨로스터에도 국산차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 출시될 신차에는 사운드하운즈의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탑재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20억 자발광 화소로 만든 '올레드 협곡'

LG전자, 美 CES 전시장 입구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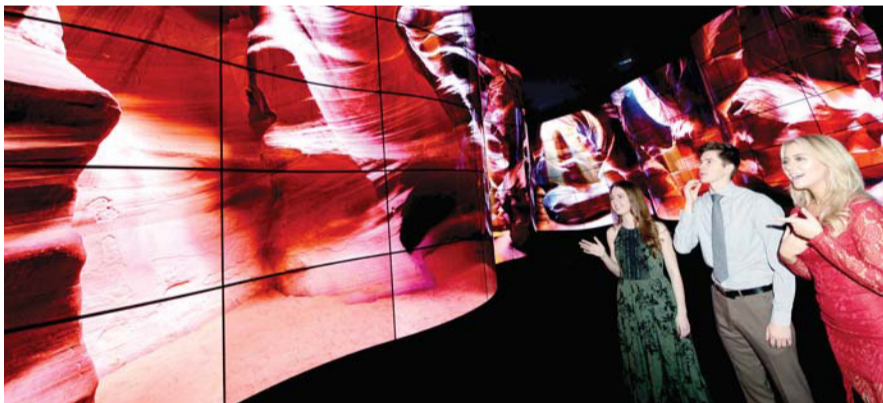
세계 최대 사암(砂岩) 협곡 엔털로프케니언, 세계 최대 해안 빙하 지역의 컬럼비아 빙원, 세계 최대 규모 폭포 이구아수 폭포가 눈앞에...

LG전자가 오는 9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8' 전시장 입구를 '올레드 협곡'으로 장식했다.

올레드 협곡은 55인치 올레드 246장으로 만들어졌으며 길이 16m, 너비 16m, 높이 6m에 이른다. 가운데 구부러진 길을 만들고, 길 양 옆에 마치 협곡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올레드 월을 세웠다.

올레드에서는 '올레드로 만나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주제로 협곡, 빙하, 폭포, 숲, 하늘, 눈보라 등 동영상을 2분 0초 동안 상영한다.

관객들은 28m에 달하는 길을 걸으며 총 20억개 올레드 자발광 화소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영상을 경험하게 된다.



LG전자가 CES 2018에서 전시장 입구에 곡면 55형 올레드 246장을 이용해 초대형 '올레드 협곡'을 설치했다. 관람객들은 총 20억 개 자발광 화소가 만들어내는 협곡, 빙하, 폭포, 숲 등 환상적인 자연 경관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LG전자

LG전자는 올레드 협곡을 통해 올레드만이 구현할 수 있는 생생한 색감과 완벽한 블랙의 대비를 보여준다.

LG전자는 그간 다양한 형태의 올레드 구조물을 설치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 2015년 날개 모양으로 올레드 TV 64대를

펼쳐놓은 '비상의 날개' ▲ 2016년 천정에 돔 형태로 올레드 TV 122대를 배치한 '돛씨어터' ▲ 2016년~2017년에는 터널 형태로 올레드 사이니지 216대를 이어붙인 '올레드 터널' 등을 선보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m@

SK이노베이션, 평창올림픽 성공 캠페인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스폰서 SK이노베이션이 개막이 눈앞에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새로운 기업PR 캠페인을 광고를 선보였다.

8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회사가 선보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응원 동영상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 100만건을 넘어섰다. 영상 공개 9일 만의 성과다. 모션 그래픽 기법을 활용해 달리기, 스피드스케이팅, 스키 등 다

양한 운동 모습을 보여주며 점차 높아지는 속도를 보여준다.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벌여 37km/h의 속도를 보여주는 달리기로 시작해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며 속도도 54km/h로 높아진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무동력 운동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는 161.9km/h를 기록한 스키다. 140km/h를 상회하는 루지, 시속 170km/h의 꺾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아이스하키 등 동계올림픽은 스포츠의 향연이다. 광고 속에서 점



SK이노베이션이 선보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광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차 높아지던 스피드는 국민들의 응원을 만나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넘어선다. 다.

/오세성 기자 sesung@

NHN엔터 직원복지 강화 '워라벨' 문화 정착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직원 복리후생제도 신설
퍼플타임제 등 탄력근무제 시행

NHN엔터테인먼트가 2018년 새해를 맞아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 라이프 밸런스(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기업문화 정착에 나선다.

NHN엔터테인먼트는 8일 다양한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도입 '퍼플타임제'를 시행해 왔다. 퍼플타임제는 오전 8시30분에서 10시30분 내 출근시간을 선택, 출근 이전 혹은 이른 퇴근 이후 시간을 직원 본인과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새해부터는 임신한 직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리받침쿠션과 발받침스툴, 전자과 차단 담요 등으로 구성된 '프리맘 서포트 키트'를



NHN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임신부키트를 착용한 직원.

/NHN엔터테인먼트

제공한다. 또 직원본인에게만 주어지던 100만원 상당의 무료종합건강검진 혜택을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님 등 가족 2인까지 확대 지원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직원 자녀들에게 책가방, 운동화와 다양한 학용품 세트로 구성된 입학선물패키지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직원자녀들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글과컴퓨터, 노진호 신임대표 내정

한글과컴퓨터가 노진호 전 우리에프아이에스 본부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한컴은 8일 공시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 노 전 우리에프아이에스 본부장을 내정하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김상철 대표와 각자대표 체

제를 꾸릴 예정이다.

노 내정자는 한국 후지쯔와 LG CNS를 거쳐 우리금융 IT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 디지털금융서비스 본부장을 역임했다. 30년 동안 IT,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인공지능(AI), 챗봇, 로봇, 블록체인 등 신기술 프로젝트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심 신규 사업과 한컴 신성장동력 발굴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기자

권오준도 'CES 行' '스마트 포스코' 시동

CES 첫 참석... 신사업 전략 구상

권오준 회장이 이끌고 있는 포스코가 연초부터 그룹 사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 전략을 가속화한다.

권오준 회장은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8'을 직접 보기 위해 출국했다. 포스코 CEO가 CES를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도 포스코그룹의 '스마트 포스코'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두환 포스코ICT 사장과 박미화 포스코 정보기획실장(상무)을 대동했다.

지난해 2월 미국 GE사와 실리콘 밸리 등을 돌아본 후 포스코그룹의 '스마트화(Smartization)'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온 권 회장은 이번에 'CES 2018' 참관을 통해 스마트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철강은 물론 건설, IT, 에너지 등 그룹사 사업 전반에 걸친 스마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9일과 10일 양일간 자동차·가전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홈 관련 전시관을 집중해 둘러볼 계획이다. 철강 수요산업들의 IT를 접목한 최신 기술 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적합한 소재 개발과 솔루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전기차 배터리와 IT 신기술을 면밀히 살펴 포스코그룹 성장분야인 리튬사업에 대한 향후 전략 방향을 점검하고, 그룹내 건설사업의 국내의 신시장 확보 가능성도 타진해 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인더스트리분야 선



'2018 포스코 패밀리 시무식'에서 권오준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진기업인 GE그룹의 디지털 솔루션 사업을 총괄하는 베이커 휴즈 GE의 하일만 마티아스 CDO(최고 디지털 책임자)와 만나 포스코 고유의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의 발전방향과 함께 GE의 플랫폼인 '프레디스'와 상호 보완 및 공동 사업화 방안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출장에서는 포스코ICT가 스마트 컨스트럭션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DPR 컨스트럭션과 스마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건설에 ICT 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컨스트럭션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한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 처리하는 고효율, 저비용 데이터 센터와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을 기반으로 제어되는 스마트 생산 공장 등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이와 동시에 스마트 컨스트럭션 부문의 글로벌 역량을 축적해 국내는 물론 해외의 데이터 센터, 스마트 팩토리 시장도 적극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5G 자율주행버스, 도심 달린다

KT, 국내 최초 국토부 허가 취득 판교제로시터서 버스 운행 계획

KT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인승 대형 버스의 자율주행운행 허가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허가를 통해 KT의 대형 자율주행버스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도심 일반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다.

KT는 이미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25인승 자율주행버스의 일반도로 운행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KT는 자율주행 도입이 예상되는 대중교통 분야 운행시험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도심지역에 구축될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사업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의 대형 자율주행 버스는 차체 길이가 12m, 차량폭이 2.5m에 달하는 45인승 차량이다. 일반도로의 최소 차선 폭인 3m를 유지하면서 대형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좌우로 한 뼘(약 25cm) 내에서의 정교한 제어가 필요하다. KT는 소형버스에 비해 더욱 커진 대형버스의 완벽한 운행 제어를 위해 5G와 LTE 네트워크 기반의 V2X(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 자율주행 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라이다, 카메라 등 기존 센서들 외에 KT 무선망을 활용



KT 대형 자율주행버스가 5일 서울 도심지역을 자율주행으로 시범 운행하고 있다. /KT

한 수cm 정밀도의 정밀 위치측정 기술과 V2X 차량 통신 인프라를 통한 상황 판단 능력, 신호등 인지 거리, 사각 지대 위험 예측 기능을 통해 운행 안전성이 개선된다.

KT 자율주행 버스는 이를 통해 시속 70km/h 이상의 고속 자율주행을 하고, 곡선 및 좌·우회전 주행, 보행자 탐지, 신호등 연동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해 복잡한 도심지 자율주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 KT는 대형 자율주행 버스의 시험운행을 통해 고속도로 및 도심지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다양한 운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군집 주행과 같은 V2X

기반 협력 자율주행 서비스와 C-ITS 인프라 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실증단지인 판교제로시터에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전용팀 KT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장은 "KT는 자율주행 승용차만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자율주행 버스의 시험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무선 인프라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차량 제조사와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자율주행 상용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전자 흑자전환 이어 연매출 60兆 시대 개막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60조 원 시대를 열었다.

LG전자는 8일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2017년 4분기 매출 16조9697억원, 영업이익 366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 14조7777억원 대비 14.8% 늘어난 성과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52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연간으로는 2016년 매출 55조3670억원에서 10.9% 증가한 61조4024억원을 기록했다. LG전자 연간 매출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

이익 역시 2016년 1조3377억원에서 84.5% 오른 2조4684억원을 달성했다. 사상 최대였던 2009년 2조6807억원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LG전자 사업분부는 HE(홈엔터테인먼트), H&A(홈플러스라이프&에어솔루션), MC(모바일 커뮤니케이션), VC(자동차부품) 등으로 구성됐다. HE와 H&A 사업분부가 실적을 견인하며 MC사업분부와 VC사업분부는 적자를 내는 상황이다. 특히 TV와 가전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강화하며 수익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기자 sesung@

LGU+ AI 상담 'U봇' 이용자 12만 명 돌파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상담 서비스 'U봇'의 이용자가 2주 만에 12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자연어 인식이 가능한 대화형 채팅 로봇(챗봇) 'U봇'은 출시 13일 만에 누적 이용자 12만 명, 상담 건수 15만을 기록했다. U봇은 일 평균 1500여 건의 고객 상담을 소화했다.

U봇은 PC 또는 모바일로 연중무휴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이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단말기에 상관없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주간 'U봇'의 주요 문어는 서비스 요청·처리 관련 건이 가장 많았다. 요금제 신청·변경, 요금 납부, 데이터 주고받기 등이 전체

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 멤버십·이벤트 확인 같은 조회업무 25%, 연말연시 새해 덕담 등의 일상대화도 10%를 기록했다.

PC와 모바일 이용자의 비율은 각각 57%, 42%로 나타났다. 챗봇 서비스 특성상 문자 입력이 수월한 PC 이용자 비중이 다소 높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U봇은 모바일과 PC 접근성이 높은 20~30대 고객들의 이용이 두드러지며 단기간에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며 "특히 U봇은 데이터를 수집·학습하며 진화하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점잖은 '회장님 차', 속도 내면 '스포츠 세단'으로!



렉서스 'LS500h'

감각적인 드라이빙 성능 강화
인테리어부분 디자인상 수상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과유불급).'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제품 전략을 전면으로 내세웠던 렉서스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렉서스는 부드러운 주행 질감과 특유의 고급스러움으로 고객 대부분이 40~50대를 형성했다. 점잖은 차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렉서스가 출시하는 차량을 보면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드라이빙 성능을 강화해 한층 젊어지고 과감해졌다. 특히 렉서스가 11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플래그십 모델 LS500h는 브랜드 변화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이에 최근 5세대 신형 LS500h를 시승하며 차량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행의 즐거움과 고급스러움은 갖추고 있지만 '회장님

차'로 이용하기에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다.

신형 LS 500h의 외관은 스포츠 세단 느낌을 담고 있다. 전 모델보다 전고는 5mm, 후드와 트렁크는 각각 30mm, 40mm 낮아지고 휠베이스는 35mm 늘어났다. 더 낮고 넓어진 차체를 기반으로 한층 역동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마치 스포츠 세단같은 인상을 남긴다.

내부는 정적이면서도 고급스러웠다. 특히 센터페시아는 일본 거문고 이미지를 살렸고, 실내 조명을 낮은 위치에서 탑승객을 맞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뒷좌석의 경우 조수석 쪽에 탑승할 시 레그룸을 1m까지 늘릴 수 있어 안락했다. 탑승자가 팔꿈치를 걸었을 때 암레스트가 좌우대칭이 되도록 철저히 디자인됐다.

타쿠미(장인)의 기술과 디자이너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아트 우드 트림, 디스플레이에 적용한 키리코(KIRIKO) 패턴 장식 조명 등 일본 전통 미학을 적용했다. LS500h는 지난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 최고의 상인 '아이즈온 디자인'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행 성능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작하면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렉서스 고유의 정숙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페달에 힘을 주자 이 같은 고요함은 사라졌다. 마치 고성능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엔진음이 실내로 쏟아졌다.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면서 뒷좌석에서 통화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에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V6 3.5리터 엔진과 2개의 모터, 10단 자동변속기에 준하는 유단기어 등을 조합한 LS 500h의 총 출력은 359마력, 토크는 35.7kg·m을 갖추고 있는 만큼 가속 능력은 뛰어났다. 순식간에 120km까지 치고 올라갔다.

주행을 하면서 차량이 응답하는 느낌에 맞춰 튜닝된 엔진음을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시승을 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급가속, 급정거 등을 반복한 결과 연비는 7.4km/L를 기록했다. 공식 복합 연비는 L당 10.6km(4륜 구동 기준)이다. 가격은 1억5100만~1억730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왼쪽부터)렉서스 LS 500h 외부 디자인, 렉서스 LS 500h 주행 모습.

中企 보듬는 ‘동반자금융’ 선포... “시장 1위 지킬 것”

2018 따뜻한 금융 행복한 한국

6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당기순익 4년연속 1조원 돌파
디지털 신규인력 20% 채용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예상하는 올해 금융권의 격전지는 중소기업 대출과 디지털 금융 시장이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 시장은 기업은행 입장에선 선두 자리를 놓쳐선 안 되는 부문이다.

김 행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 1등 은행이라는 위상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경쟁은행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 금융 만큼은 압도적인 차별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행은 1998년 네트워크론, 2008년 상생협력대출이라는 혁신적인 상품을 세상에 내놨다”며 “2018년에는 중기 금융 시장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사람의 상상을 뛰어 넘는 기업은행만의 예리한 무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금융 1위 수성

김 행장은 “작년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금융에 뛰어 들었다면 올해는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이 앞다퉀 중기금융 시장에 뛰어 들 것”이라며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로 경쟁은행 모두가 중기대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중기 금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해에는 ‘동반자 금융’을 선포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사다리 역할을 하

겠다는 의미다.

김 행장은 “경쟁은행의 움직임이 면밀히 살펴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기술금융, 기업카드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문, 그 어느 것 하나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절대적으로 지켜낼 계획이다.

지난해는 기업은행이 건전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 해였다.

그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대출이 140조원을 넘어섰고, IB부문은 물론 퇴

직연금, 외환, 신용카드 그리고 신탁부문도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며 “생존을 위한 기초체력인 건전성 부문도 부단한 노력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해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기업은행의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1조2476억이다. 2016년 연간 순이익의 1조1646억원을 이미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창립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당기순이익 1조원(연결기준)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디지털 혁신인재 1만명 육성”

기업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인 아이원(i-ONE) 앱에는 매일 111만명이 방문한다. 전국의 627개 영업점에 매일 1770명의 고객이 방문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이미 모바일을 통한 개인대출 실적은 영업점 전체 실적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김 행장은 “우리의 플래그십(Flagship) 영업점은 이제 아이원 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다음달에는 기업 스마트뱅킹과 빅데이터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권 최초로 창구업무의 100% 디지털화를 시작했다.

인프라 뿐 아니라 전 직원의 디지털 경

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창의적인 융합과 혁신적인 도전을 실천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인재 1만 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 분야 인력비중도 신규 채용인력 기준으로 20%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취임하면서부터 현장을 가장 강조해 왔다. 현장은 이익의 원천이자, 고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그의 신념이다.

김 행장은 올해 시무식에서도 “변함없이 고객과 현장을 가장 중요한 경영의 축으로 삼을 것”이라며 “작년보다 더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현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지난 2일 시무식을 마치고마자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강원지역 영업 현장을 찾았다. 강릉지점을 시작으로 속초, 동해를 거쳐 원주 지점까지 이날 이동한 거리만 700km에 달한다.

김 행장은 지난 2016년 말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총 196개 영업점을 방문해 4287명의 직원들을 만났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JB금융 전북銀, 영업·디지털 강화 조직개편



JB금융그룹 여의도 사옥. /JB금융그룹

**영업추진부 조정해 민첩성 높여
디지털본부·리스크검증팀 신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영업 기능과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비이자사업 총괄업무를 영업전략본부에 집중하고, 일반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력 제고를 위해 영업추진부서의 역할을 조정해 조직의 민첩성을 높였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반기술과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및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본부를 신설했다. 본부는 디지털전략부, 디지털사업부로 구성해 신규 사업분야 및 비대면채널을 통한 미래 영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리스크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반도 다졌다. 전북은행은 여신감리부 산하 리스크검증팀을 신설, 신용위험 관리를 위한 리스크 모형에 대한 적합성검증 기능을 신설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앞줄 왼쪽 세 번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 강당에서 2018년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손보

NH농협손보, 2018 사업추진 결의

대표이사·임직원 등 50여 명 참석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 강당에서 오병관 대표이사 와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오 대표이사 와 임직원들은 이날 ‘질적 성장을 통한 확고한 수익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전략 방향을 세우고 ‘고객 중심의 마케팅 역량 고도화’, ‘수익성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보험산업 환경변화

적극 대응’, ‘농업인·농업과 살생발전 추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오 대표이사는 “농업인과 고객을 돌아보는 현장경영에 힘쓰겠다”며 “올해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선도보험사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협손보 임직원들은 지난 6일 경기 과천시 청계산을 등반하며 2018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신한은행 “은퇴 준비 상담 받으세요”

내달 말까지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은 황금개피해를 맞아 오는 2월 28일까지 은퇴 준비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설계 상담 및 미래설계(은퇴)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급속한 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대다수 국민이 체계적인 은퇴 준비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은퇴설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2014~2015년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 거주 30~50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 전문가를 통한 노후 대비 상담 이용 경험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주최한 ‘부부은퇴교실’에 참여한 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설계를 받아본 사람의 비율이 19%로, 은퇴를 앞둔 고객 대다수가 본인의 은퇴 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신한S뱅크 앱을 통해 ‘S-미래



설계’ 은퇴설계 진단을 받거나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공백 기간 대비 목적 ‘가교연금’ 상품인 미래설계크레바스연금예금, 미래설계장기플랜연금예금, 신한미래설계계좌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국 영업점의 은퇴설계 전문가와 다양한 미래설계(은퇴) 상품, 은퇴 포털 앱인 ‘미래설계포유’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은퇴 솔루션을 제시해 고객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中企 대출금리 0.4%p 우대

우리銀, 4대보험 도입업소 대상

우리은행은 국민연금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도입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금리 우대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도입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연 0.4%포인트 우대한다.

우대 대상은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우리은행 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한 고객 중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이다. 우대율은 자동이체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건당 연 0.1%포인트, 3개 이상을 등록하면 연 0.4%포인트다.

우대 적용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특화 상품인 ‘우리CUBE(큐브)’, ‘우리가맹점포워통장대출’ 등으로 대부분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을 도입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금리 우대 등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더큰금융’을 실천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보험료 부담 적은 ‘KB다이렉트 암보험’ 출시

KB손보, 최대 100세까지 보장

KB손해보험은 다이렉트 채널 전용 암보험 상품 ‘KB다이렉트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상품은 KB손보 다이렉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입, 판매수수료가 없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더욱 낮췄다.

만 19세부터 49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15·20년마다 자동 갱신된다. 고객이 직접 기본형·표준형·고급형 등 세 가지 플랜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질병사망·암사망 담보는 80세까지 보장하며 기타 다른 담보의 경우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암진단비와 치료비는 물론 암으로 인한 수술비, 입원일당,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등 암 발생 시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해 폭넓게 보장한다.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10대 고액암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첫번째 암 진단 확정 후 2년마다 재진단 시 재진단암 진단비를 지급한다.

보험료는 표준형, 상해 1급, 20년납·20년 만기, 월납, 40세 남성 기준 월 3만 7759원, 40세 여성 월 3만 3640원이다. /이봉준 기자

개인간 누적대출액 2조 돌파, 여기서 더 클까?

최대 관건은 '투자금 한도 상향'

금융 예측 2018 ④ P2P 대출 (끝)

지난해 대출액 전년비 246% 급증
올 가이드라인개정·제도권 입성
미흡했던 투자자보호 강화도 기대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시장이 '중금리대출 강자'로 부상하며 누적대출액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투자자 한도 상향,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되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 전체 누적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조 1744억원으로 2016년 말(6289억원) 대비 245.7%(1조545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P2P대출 업체 수는 183개로 46.4%(58개사) 늘었다. 이 중 전체 시장의 76.0%를 차지하는 P2P금융협회 회원사의 지난해 말 누적대출액은 1조8034억원으로 1년 만에 285%(1조3351억원) 성장했다.

P2P대출 시장은 중금리대출과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급성장해 왔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다수의 대출자와 다수의 투자자를 연결해 주면서 대출자에게는 비교적 중·저금리로, 투자자에게는 저금리 시대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한 영향이다.

그러나 시장이 점차 커지자 금융 당국은 투자자·대출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2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막는 것이 핵심으로 업계의 성장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는 기존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만료(2월 27일)를 앞두고 지난해 말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P2P대출업체수 및 대출추이) 단위:社, 억원, %

구분	'15년말	'16년말(A)	'17.6말	'17.11말(B)	증감(B-A)(증가율)
P2P업체수	27	125	162	183	58(46.4)
협회회원사	-	34	56	58	24(70.6)
누적대출액	373	6,289	13,981	21,744	15,455(245.7)

주) 출처: 'P2P금융협회', '크라우드연주소' 발표자료.

(연체율 추이) 단위: %

구분	'16년말	'17.6말	'17.11말
전체 연체율	1.24	2.36	7.12
신용대출 전문업체	1.94	1.90	3.52
부동산PF 전문업체	1.22	3.94	13.71

주) 연체율: 30일이상 연체대출액/대출잔액 비율 2) 연체율은 P2P금융협회 회원사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업계에 따르면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투자한도 상향 ▲투자자 보호 강화 ▲원리금 수취권 해석 명문화 ▲협회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등이 담겼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당국은 투자 한도를 '연간'으로 표시했으나 사실상 '잔액'을 의미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투자자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1000만원을 투자한 뒤 100만원을 거두면 다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식이다.

이에 업계에선 투자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협회 측은 28일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 투자한도 상향에 대한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P2P금융 업계 관계자는 "P2P 투자 한도 구간이 일반 개인투자, 소득적격 개인투자, 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업계는 구간별로 2~3배 상향하는 등 다양한 안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한도 금액은 제시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선 투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 예치금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출 채권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대출 채권을 P2P 업체마다 신탁에 맡겨놓거나 법무법

인과 계약해서 연계 업체가 도산 시 분배하는 식으로 계약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업체가 그런 장치를 사용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등의 P2P투자 제한 해제에 대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2P투자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인 '원리금 수취권' 매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걸 우선으로 봤다.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자율규제도 강화하고자 했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회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2P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업계에 요구한 자료들을 준비 중이다. 2월 28일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발표일 3주 전에 공개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투자금 한도 상향,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조정되면 업계가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오는 3월부터 P2P대출 업체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한도가 높아지면 중금리대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삼성 한국형TDF' 수탁고 30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은 8일 삼성 한국형TDF가 수탁고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삼성 한국형TDF는 2016년 4월 설정 이후 꾸준히 자금이 증가해 약 7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한 국내 TDF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펀드는 출시 1년 만인 지난해 4월 수탁고 1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9월에 2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펀드 성과가 이러한 수탁고 증가를 뒷받침했다. 삼성 한국형 TDF의 7개 펀드 상품 모두 누적수익률이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렸었다. 이 중 2045 펀드는 설정 후 20.59%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 6개월 7.47%, 1년 17.0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에프앤가이드 1월 5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측은 안정적인 성과의 원인을 삼성 한국형TDF만의 고유한 '자동 자산배분 프로그램(Glide Path)'에서



찾는다. 자동 자산배분 프로그램이란 대다수 연금자산 투자자가 자산배분에 대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은퇴시점만 정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TDF가 최적의 투자를 수행하도록 설계한 자동 리밸런싱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히 삼성 한국형TDF는 자동 자산배분 프로그램 설계 시 퇴직연령, 기대수명, 취업연령, 임금상승률 등 미국인과는 다른 한국인 고유의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를 반영해,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TDF'를 구현했다.

/김민호 기자 kmh@

'12.4조 성장세' 헤지펀드 수익률은 '빈익빈 부익부'

운용성과 쌓이면서 수익 희비

관계자 "다양한 운용전략 필요"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절대수익을 낸다'는 한국형 헤지펀드. 지난 2011년 12월 출범한 지 올해로 7년째 접어들었다. 헤지펀드는 12조원대의 시종자금을 뿔아들이며 자금 블랙홀이 됐다.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기관과 초고액자산가의 자금이 몰리고 있어서다. 그러나 트랙레코드(운용성과)가 쌓이면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8일 NH투자증권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형 헤지펀드 설정액은 12조 4606억원을 기록했다. 11월 말 12조 4472억원보다 감소했다.

개별 헤지펀드 설정액은 NH애플르투와 '삼성 다빈치 1호'의 설정액이 각각 4524억원, 4044억원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형펀드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헤지펀드가 대안 투자처를 찾는 고액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지난해 6조원 규모의 자금이 이탈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자 투자자들이 환매에 나선 것.

헤지펀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생 운용사도 우후죽순 등장해 헤지펀드 운용사 수는 107개까지 늘어났다.

자금 블랙홀은 교보증권이다. 교보증권 헤지펀드 95개의 순자산 총액(설정액+운용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 1조5553억원으로 업계 1위다.

여기에 2015년 10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도 주요했다. 헤지펀드 운용 요건이 자기자본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고, 투자 최소금액도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결과 시장에 새로 뛰어든 헤지펀드 운용사가 크게 늘고 자산가들의 투자도 증가했다.

운용사들의 투자 실적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지난해 수익률이 가장 컸던 펀드는 '트리니티 멀티 1호'로 107.71%에 달했다. 헤지펀드의 주요 전략인 멀티 스트래티

(한국형 헤지펀드별 설정액) 단위:억원

구분	한국형 헤지펀드명	설정액
1	NH 애플르투	4,524
2	삼성 다빈치 1호	4,044
3	미래에셋 아비트리지 1호	3,158
4	흥국 재량투자 2호	2,038
5	타임폴리오 The Time-H	1,711
6	타임폴리오 The Time-A	1,653
7	삼성 Equity Hedge1호	1,545
8	타임폴리오 The Time-H	1,498
9	HDC 프레스토	1,495
10	피데스 신머이B&I	1,489
합계		124,472

주) 12월 29일 기준.

(자료=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언론보도 종합)

지(Multi-Strategy)를 쓴 '브로스 형제 R'도 50.76%에 달했다.

통속 전략을 쓰는 DS자산운용의 '디에스진(珍)과 디에스 정(正)은 각각 51.99%, 50.4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플랫폼 액티브메자닌 1호'와 '플랫폼 액티브메자닌 2호'도 각각 94.71%, 38.47%의 수익률을 냈다. 이들 펀드는 피스트 인컴, 매자진 전략을 쓴다.

기업공개(IPO) 전략을 쓰는 '파인밸류 IPO플러스'와 '아이온 니케 HNW 1호'도 각각 30.96%, 24.79%의 수익률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한다는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랙레코드가 쌓이는 만큼 한국형 헤지펀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한국형 헤지펀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운용인력들의 전문성이 확대됐지만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한국형 헤지펀드가 퀀텀점프를 하려면 보다 다양한 운용 전략 구사가 가능해야 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미적미적한 태도도 헤지펀드에는 아픈 부분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부터 참여를 했지만 아직 업계가 만족할 만한 투자는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 투자 방식을 참고하는 다른 연기금과 공채회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민호 기자

투자고수 모여라... '중주식 모의투자대회'

키움증권 15일부터 4주간 진행
종합 수익률 1등에 6000위안화

키움증권이 '제2회 중국주식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진행된다.

제2회 중국주식 모의투자대회는 종합리그와 주간리그로 나뉘지며, 최종 종합리그 수익률 1등에게는 6000위안화, 2등에게는 4000위안화, 3등에게는 2000위안화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매주 수익률 1등에게는 1000위안화 상금이 별도로 지

급된다. 김정훈 키움증권 글로벌영업팀장은 "2017년도 미국 나스닥지수가 연간 28.2% 상승한 반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연간 6.1%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실제매매와 유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중국주식 모의투자대회를 통해 간접경험을 쌓아 중국주식 실전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참가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영웅문4, 영웅문W)을 통해 가능하며 모의투자 매매는 영웅문4를 통해 할 수 있다.



중국주식 모의투자대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대우건설, 올해 2만4700 가구 아파트 공급

지난해보다 5000여 가구 증가
서울 1409·지방 6344 가구 등

대우건설이 올해 지난해보다 5000여 가구 늘어난 2만4700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새해 전국에서 2만4785가구의 새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8일 밝혔

다. 이는 지난해 공급한 1만9583가구보다 5000여가구 늘어난 것이다.

서울에서 1409가구, 인천·경기 1만7032가구, 지방에서 6344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2만17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947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주상복합 4848가구, 오피스텔 458실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달 중 과천 주공7-1단지 재건축하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씨밋'으로 첫 분양에 나선다. 총 1317가구이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5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3월에는 춘천 은의동,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각각 1천176가구, 548가구를 선보이고 광명 철산 주공4단지 재건축(4월), 수원 고등주거환경개선지구(5월), 서울 사당 3구역(7월), 흥제동 1주택 도시정비사업(10월) 등에서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온라인 고객도 놓칠 수 없다... 진화하는 '백화점 식품관'

갤러리아백화점

'고메이494' 온라인몰 선봬

롯데·현대백화점

리뉴얼 오픈... 고객맛이 심혈

'미식의 성지'로 자리잡은 백화점 식품관이 진화하고 있다. 발품 팔아 찾아가는 백화점 식품관의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금단의 영역이 깨진 것이다. 당연히 고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백화점들이 앞다퉀 대대적인 점포 리뉴얼을 해 지겹지 않은 미식 여행이 가능해졌다. 식품관은 백화점 집객 효과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온라인몰 확장

8일 백화점업계에서 따르면 백화점에 그로서리(식재료와 음식품을 결합한 식문화 공간)를 최초로 도입한 갤러리아백화점이 프리미엄 식품관 '고메이494'의 온라인몰을 선보였다.

고메이 494 온라인몰은 갤러리아만 선보이는 단독 상품 73개와 백화점 식품관 프리미엄 식재료 상품 등을 비롯해 총 102개의 브랜드와 700여개의 상품을 판매한다.

700여개의 상품은 고메이494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품질, 안전성, 단독, 최상



현대백화점 천호점 식품관 전경.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품관 노포존과 오픈다이닝존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롯데백화점

등급, 트렌디, 제철, 명인 등 일곱 가지 기준에 맞춰 선별했다.

갤러리아명품관에서만 판매하던 프리미엄 특화 상품들도 온라인에 내놨다. 발효 숙성 막걸리를 먹고 음악을 들려주는 등 독특한 방법으로 사육한 프리미엄 한우 '강진맥우', 전북 고창에서 자란 신선한 햇참깨와 햇들깨를 착유한 '고메이494 참기름·들기름', 경북 영주의 6대째 내려오는 전통 방식을 고수해 정성스럽게 담아낸 '고메이 494 된장'을 만날 수 있다.

해외 직수입 브랜드로는 프랑스 올리브 전문 브랜드 '올리비에&코(OLIVIE RS&CO.)', 영국 유기농 식품 브랜드 '바

이오나(Biona)', 프랑스 명장 쇼콜라티에의 수제 초콜릿 '사퐁', 프랑스 리츠 파리 호텔 레시피로 제작된 커피블렌드와 잼 등이 있다.

◆전면 리뉴얼 단행

백화점 식품관의 오프라인 점포도 최근 새롭게 단장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2008년 이후 10년만에 식품관을 전면 재단장하고 지난 달 29일부터 '푸드 에비뉴'를 선보였다.

기존 대비 면적을 30% 확대하고 브랜드를 30여개 늘려 연 매출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식품관 매출 구성비는

2015년 11.4%, 2016년 11.7%, 2017년 1~11월 12.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지난 11월부터 1년여간 네 차례에 걸쳐 전면적으로 식품관을 재단장하고 집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잠실점의 푸드 에비뉴는 키크랩, 스테이크 등을 현장에서 바로 조리하는 그로서리 매장부터 국내의 맛집과 디저트, 펍(pub) 매장 등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총 망라했다.

우선 원하는 식재료를 고르면 바로 조리해주는 방식의 그로서리 매장은 식재료의 특성에 따라 수산과 축산을 별도

로 운영한다. 다양한 종류의 면 요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매장으로 구성된 누들바(Noodle Bar)도 선보였다.

백화점 업계 최초로 크래프트 맥주 전문 매장도 도입했다.

현대백화점도 지난해 10월 국내·외 유명 맛집 대거 입점시켜 천호점 식품관을 리뉴얼 오픈했다.

기존 2개층으로 나뉘어 있던 식품관을 지하 2층으로 통합했고 면적은 40% 늘린 5300㎡(1600평) 규모로 구성됐다.

리뉴얼 오픈 후 한달간 백화점 매출은 13.1%, 식품관 21.1%가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평창 동계올림픽서 K-푸드 전도사 나선다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 앞세워 전세계 홍보 대회기간 한식체험 기회 제공 예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서포터인 CJ제일제당이 스폰서십 활동을 본격화한다.

CJ제일제당은 평창올림픽 후원을 통해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 '비비고' 만두를 앞세워 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8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이 평창올림픽을 후원하는 것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해온 동계 스포츠 후원의 일환이다. CJ제일제당은 CJ그룹의 스포츠 인재 육성, '꿈지기' 사회공헌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스노보드와 같은 설상종목과 스킨레톤 등 설매 종목에 대한 후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 또한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후원이 이뤄졌다.

CJ제일제당은 경기장 내 식당과 매점에 '비비고' 만두가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선수들 식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선수를 비롯한 대회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한식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THE CJ CUP'을 후원하며 세계적인 스



CJ제일제당이 후원하고 있는 스노보드 알파인 이상호 선수(왼쪽부터), 스킨레톤 윤성빈 선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김호준 선수, 프리스타일 모굴스키 최재우 선수. /CJ제일제당

포츠 대회를 통해 한식을 알린다. 있다.

개최지 밖에서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준비했다. 대회 기간 전주 오코밸리 리조트에 '비비고 테이스티 로드 투 평창(Bibigo Tasty Road to Pyeongchang)' 부스를 설치하고 비비고 제품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등 한식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 중 약 10만명의 외국인이 오코밸리 리조트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인지도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치얼업(Cheer Up)' 캠페인도 진행한다.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 비비고와 고메, T

he더건강한햄 등 주요 제품으로 구성된 '치얼업 푸드(Cheer Up Food)' 세트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 관람권을 제공하는 소비자 이벤트도 진행한다. 비비고, 고메, 백설, 해찬들 등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개회식과 쇼트트랙, 스키점프, 봅슬레이 등 여러 종목의 경기 관람권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KGC인삼공사

여성전문 '화애락' 리뉴얼

KGC인삼공사가 여성 전문브랜드 '화애락'을 리뉴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화애락'을 여성 전문 브랜드로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빛나는 나를 완성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새로운 브랜드 BI를 '화애락' 전 제품에 적용했다. 또한 일부 제품에 부원료를 강화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



'화애락' 브랜드 제품으로는 전반적인 여성 건강을 위한 '화애락본', 여성 갱년기 건강을 위한 '화애락진'·'화애락큐'가 있으며, 지난해 9월에 출시한 여성 뼈 건강을 위한 '화애락 리본'과 여성 종합 영양을 위한 '화애락 밸런스팩'이 있다.

'화애락'에 들어가는 홍삼은 정관장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과한 원료만 사용한다. 290여개 안전성 검사를 7회에 걸쳐 합격해야만 쓰일 수 있다. 부원료도 홍삼에 준하는 품질관리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가 까다로운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등 안전성을 입증 받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화애락' 브랜드 리뉴얼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화애락'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바쿠'와 플라보닌 '화애락 에코백'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증정(1인 1개 한정)한다. /박인용 기자

도드람푸드, 신임 대표이사에 김청룡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도드람푸드의 신임 대표이사로 김청룡 전 NH무역 대표이사(사진)가 취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 새롭게 취임한 김청룡 도드람푸드 대표이사는 NH무역 및 농협유통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농협 말단 사원에서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농·식품 유통시장에서 30여 년간의 경력을 쌓아 온 전문 경영인이다.

김청룡 대표이사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고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도드람푸드를 국내 최고 식품안전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며 "또한 소통과 배려가 바탕이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청렴과 윤리경영이 일상에서 실천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인용 기자

메디톡스 '뉴라미스' 누적 판매 800만개 돌파

독자적으로 개발한 히알루론산 필러 수출국 지속 확대 등 해외 공략 박차

메디톡스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시리즈(사진)의 누적 판매량이 800만개를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뉴라미스 시리즈의 본격적인 판매 이후 3년 만인 2015년 300만개의 누적 판매량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만에 800만개를 돌파한 것이다.

메디톡스가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한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품질위원회(EDQM)에 등재된 히알루론산을 원료로 사용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필러다. 차별화된 제품력과 우수한 품질로 출시와 함께 빠른 시장 진입에 성공해 출시 5년 만에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필러 제품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신규광고 '완성하세요. 웃어보세요. 이제 펴보세요. 뉴라미스 타임'을 선보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번만 들어도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 강한 '뉴라미스 타임' 징글과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설정은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280만부가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 시장에서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세계 22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는 등 지속적인 수출 국가 확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논문이 성형외과 최고 권위인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 '미국성형외과 학회지'에 게재되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용기 메디톡스 이사는 "뉴라미스 시리즈가 출시 5년 만에 누적 판매량 800만개 돌파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달성한 데는 우수한 제품력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덕분"이라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공격적인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뉴라미스를 글로벌 1위 제품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경영성과금의 DC적립효과



김현기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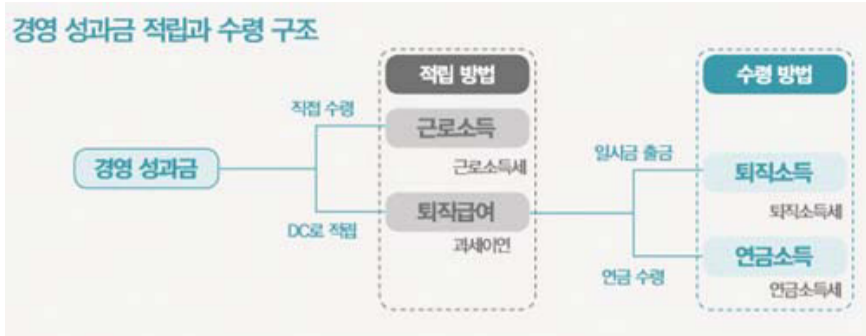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70

경영성과금이란 근로 대가인 '임금'과 무관하게 경영 성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경영성과금은 급여로 받거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입금해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Q:경영성과금을 급여로 받는 것보다 DC형에 적립하여 나중에 일시금 출금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A:경영성과금은 급여로 받으면 당해 연도 연말 정산 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6%~41.8%까지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영성과금을 DC로 적립하면 퇴직시 일시금으로 출금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계속 운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이 때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부분은 앞선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편을 참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면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으로 적립하여 근로소득세를 내는 방법이 있고, DC로 적립하여 퇴직시 일시금 출금하여 퇴직소득세를 내는 방법과 계속 운용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연금소득세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성과금을 DC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퇴직연금규약에 경영 성과금 관련 내용이 있을 것. 둘째, 규약에 경영 성과금의 퇴직급여 적립 비율이 명시되어 있을 것. 셋째, 근로자는 개별로 성과금의 퇴직급여 적립을 선택할 수 있을 것. 넷째, 경영 성과금을 적립할 수 있는 DC제

도에 가입하고 있을 것 등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 성과금의 DC 적립의 효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근로소득세 세율이 높은 근로자는 DC 적립하여 일시금 출금 또는 연금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세율 > 퇴직소득세율 또는 연금소득세율)

둘째, 경영 성과금이 DC로 적립되면 기준소득월액이 줄어들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셋째, 경영성과금을 DC로 적립하였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노후 대비가 한층 더 두터워 질 것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내외50연구소장



서기봉 NH농협생명 사장, 신년맞이 고객소리 청취 나서 NH농협생명은 8일 오전 서기봉 대표이사(오른쪽)가 스마트콜센터를 찾아 김민희 최우수 상담사와 콜칭취를 체험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서 사장의 이번 콜센터 체험은 신년을 맞아 고객 최접점에서 일하는 NH농협생명 스마트콜센터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서 사장 외 강태호 전략총괄부사장 등 부장급 이상 임직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농협생명



푸르덴셜생명, 2018 푸르케어즈 해외봉사단 파견 푸르덴셜생명은 임직원과 라이프플래너 3명, 고객 자녀 12명으로 구성된 2018 푸르케어즈 해외봉사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다고 8일 밝혔다. 푸르케어즈 해외봉사단은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캄보디아 돌목 올 마을에 머무르며 현지 초등학생들에게 예체능과 위생교육봉사를 실시한다. 또 마을 내 도로 보수 공사, 학교 정비 등 봉사활동을 펼친다. /푸르덴셜생명

가맹사업 상생의 길은



이상현 역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연일 프랜차이즈에 대한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갑질', '보복출점', '통행세', '일방적 통제', '강요' 등이다.

모두 절대적 권력이나 권한에 의한 약자의 의무항목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의 중심엔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문화된 계약서 기반의 갑을관계 사업형태에기에 가능한 내용이다.

현재 국내 자영업시장은 포화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취업자수 2674만명 중 비임금근로자는 686만명으로 25.6%에 달한다.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평균은

15% 미만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자가 너무 많아 공생하기가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창업자 중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2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나홀로 사장이거나 무급가족 종사자가 영업을 지원한다. 그만큼 창업시장은 어려움을 지나 암울하기까지 하다. 특히 7530원으로 대변 되어지는 임금인상은 더욱 그러하다. 소위 '묵숨형 창업' 전선에 합류한다.

그들 중 많은 창업자들은 당연히 노하나 경험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가맹사업은 철저한 계약서 기반형 사업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창업자들은 가맹사업 법이 정한 계약전 사전제공의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약속환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해야한다. 일정한 조건과 업력 그리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사전 심의와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세부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통제를 조목조목 심사를 통해 갑질로 야기되는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요한 역할이기도하다.

아울러 논란의 중심인 계속 가맹금의 범위와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콜라와 사이다는 전용상품이고 특정 브랜드의 맥주는 비전용상품이라는 해석도 있듯이 그 기준이 모호한 사례가 많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을 업계 스스로의 자성과 상생노력, 실천수법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야만 피눈물 흘리는 가맹점사업자의 눈물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연 소장(컨설팅학 박사)



중근당, 독거노인·저소득층에 '사랑의 연탄나눔' 진행 중근당은 지난 6일 신입사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중근당 신입사원들은 금촌동 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연탄 4000장을 전달했다. 또한 골목 곳곳에 쌓인 눈과 얼음으로 이들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제설용 모래주머니 150여 개를 만들어 결빙구간에 배치했다. /중근당



SK매직, M.C격려 연도 시상식 개최 SK매직은 렌탈 고객을 위해 열심히 근무한 매직케어(M.C)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8 연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고상인 SK매직상은 남양주 도농지국 서현민 매직케어, 강북지부 김예숙 지부장, 일산서부지국 박경신 지국장, 인천계양지국 오대권 지국팀장 등 총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총 128명의 매직케어가 각 부문별 상을 수상하며 상금과 해외여행권 등을 부상으로 받았다. 전속모델인 현빈, 류권주 대표이사(왼쪽 세번째부터)가 'SK매직상'을 받은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매직



코스콤, 사업목표 달성 신년 워크숍 코스콤은 2018년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임원 및 직책자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콤은 지난 6일 경기 광주 남한산성에서 임원 및 직책자 등 100여 명과 함께 신년 산행을 갖고 2018년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호제창 및 단합행사를 진행했다. /코스콤

인사

- ◆**고위공무원 승진**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상순 △ 3급 승진 △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상권 △ 4급 승진 △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홍준 △ 법무연수원 총무과 배성용 △ 4급 전보 △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김정열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천재 △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실 김종관 △ 운영지원과 김진섭 △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김정복 △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이석재 △ 서울구치소 시설과장 조록환
- ◆**국토교통부** △ 전보 △ 건축문화경관과장 이경석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정책보좌관(별정직 3급) 김중현
- ◆**교육부** △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오승현 △ 전라북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황홍규 △ 경상남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송기민 △ 사회정책협력관실 파견(사회정책 3팀장) 서기관 김정수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기획팀장) 서기관 오응석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정책협력팀장) 장학관 송달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술서기관 정병호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 행정사무관 박현정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 행정주사 김영삼
- ◆**문체부** △ 국립한글박물관장 박영국
- ◆**농림축산식품부** △ 실장급 승진 △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재욱 △ 실장급 전보 △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허태웅 △ 국장급 전보 △ 농촌정책국장 오병석
- ◆**메트로신문** △보임(겸직) △ 편집국 유통&라이프 부국장 김승중(정책사회부장 겸직) △승진 △ 편집국 부국장 산업부 윤희중 △ 경영지원실 부장 박성호
- ◆**아시아타임즈** △ 사장 겸 편집국장 임춘성
- ◆**에너지경제신문** △ 부사장 겸 편집국장 손병수

- ◆**IBK투자증권** △ 상무부 승진 △ 서초센터장 김기연 △ 경주분당센터장 이창섭 △ 금융상품영업팀장 신석환 △ 채권영업1팀장 정낙원 △ 이사 승진 △ 스마트금융팀장 심상운 △ 프로젝트금융팀장 최미혜 △ PE1팀장 최신대 △ 경인센터 이정천 △ WM채권전략팀 전용운 △ IB기업금융팀 전재일 △ 부장 승진 △ IBK WM센터 시화공단 지점장 이동훈 △ E-BIZ지원팀장 박혜조 △ OTC파생팀장 장성준 △ 총무팀장 김석원 △ 커뮤니케이션팀장 김은정 △ IBK WM센터 반포자이 박정용 △ 법인영업2팀 김진호 △ 프로젝트금융1팀 김성환 △ 복합금융팀 백낙권 △ 투자전략팀 정희정 △ 신규산업 △ 결제업무팀장 소은희 △ IBK WM센터 강남 노영진

부음

- ▲서경숙씨 별세, 조방수(한국신용정보원 상무) 씨 장모상 = 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 02-2227-7500
- ▲김중순씨 별세, 김경수(대한골프협회 경기위원,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씨 장모상 = 8일 오전 전북 전주 현대장례식장 101호, 발인 10일 오전 10시, 063-275- 44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2018 한양 CYBER 미래경영 아카데미 1기 모집

미래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소기업 CEO 교육

교육기간

2018. 3. 14 ~ 2018. 6. 27
(매주 수 2강좌, 18:00~21:30)

교육장소

전반기 : 리베라 호텔
후반기 : 한양대학교 HIT

접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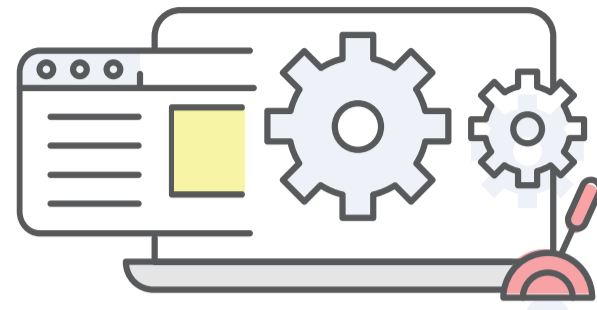
2017. 12. 13 ~ 마감 전까지

접수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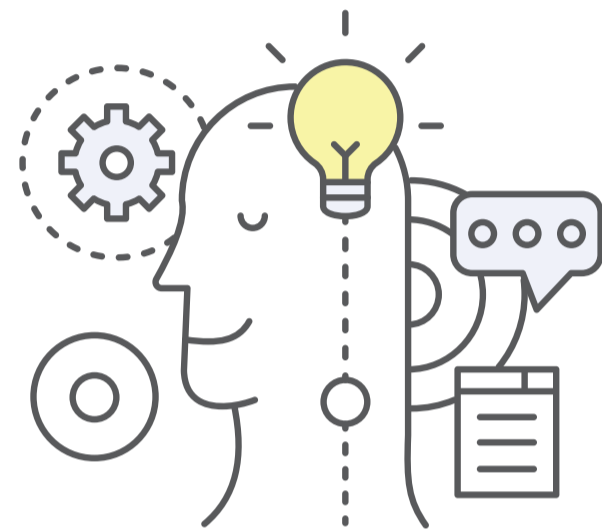
중소기업미래경영원 사무처
Tel: 02-6204-7600
E-mail: fmis@fm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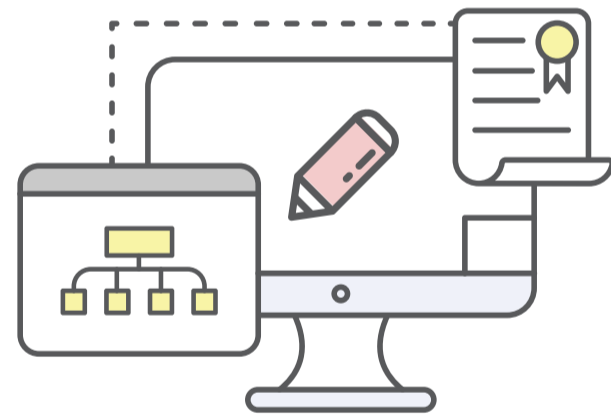
CURRICULUM



- 미래경영**
- 경영환경 변화 속의 적합한 기업경영
 -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함양
 - 미래과학기술의 발달에 맞춘 경영전략 수립



- 창조융합 혁신경영**
- 창조적 경영전략을 통한 경영혁신
 - 창의적 가치와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리더십 육성



- 감성문예 경영**
- 기업경영에 감성문예를 접목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문화예술적 인식과 시각을 통한 전문 경영인의 감성 리더십 강화



- 장수기업 경영**
- 기업경영전략에 대한 통찰력 함양 및 조직문화 설계
 - 장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사례 습득

한화, 다문화 아이들에 평창올림픽 티켓 선물

‘찾아가는 불꽃클래스 수업’ 진행
김승연 회장 적극 동참 의지 보여

한화그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다문화 가정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꽃클래스 수업’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지구촌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올림픽의 기원과 역사를 설명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와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화 기술력으로 개발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화봉을 직접 만져보고 장난감 블록으로 나만의 성화봉을 제작하는 체험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행사 마지막에서 한화와 조직위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과 마스코트 스노우볼 등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불꽃클래스’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한화그룹이 지구촌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불꽃클래스 수업’을 진행했다.

/한화그룹

만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한화와 조직위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해 국립맹학교, 인천 백령초등학교, 거제 일운초등학교 등 다문화 센터, 장애학교, DMZ에 위치한 학교 등 7개 학교와 교육박람회 등 총 14회에 걸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화그룹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티켓 구매 및 기증, 성화봉 제작, 불꽃축제 지원 등 적극적인 후원과 붐업에 나서고 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다음 달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서는 행사인 만큼 우리도 적극 동참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일동제약 강원도 어린이들에 ‘지큐랩 키즈’ 선물

일동제약은 강원도 횡성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2200여만원 상당의 자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지큐랩 키즈(사진)’를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등과 같이 우리 몸 속에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익균을 말한다.

일동제약은 강원도 횡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강원도가 추진하는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

횡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에 가정형편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제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하는 어린이들이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추운 겨울,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잘 먹고,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나눔교육복지사업은 강원도가 지역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KT스카이라이프 임직원 릴레이 기부 캠페인

KT스카이라이프는 임직원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임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사랑의 1004’ 모금 캠페인,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 헌혈, 방한복 기부 등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지속 시행해왔다.

‘사랑의 1004(천사) 캠페인’은 ‘한 달에 한 번 천사가 되는 날’을 슬로건으로, 연초 임직원들에게 저금통을 나눠주고 매달 14일에 1400원을 자유롭게 모금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모금액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KT스카이라이프는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카페모아’ 커피전문점에 책 300권을 기증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한 ‘카페모아’에 KT스카이라이프는 ‘책 모으기’ 캠페인으로 필요한 도서를 꾸준히 기부할 방침이다.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헌혈 캠페인을 시행하고, 쪽방촌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방한복을 기증하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사랑의 1004’ 모금 캠페인.

/KT스카이라이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에 아침식사 제공

CJ대한통운은 8일 전국 현장을 찾아가 구상원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달려라 밥차’ 올해 첫 행사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2010년에 시작해 지난 8년간 450회 이상 진행하며 총 3만5000여 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CJ대한통운 차동호 부사장과 신동휘 부사장(오른쪽 첫번째부터)이 택배기사들에게 아침식사를 배식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신점[神占] 운세 1월 9일 (음 11월 23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p> 쥐 60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세요. 72년생 주색을 조심할 때입니다. 84년생 고집부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96년생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습니다.</p> <p> 소 61년생 대만족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습니다. 73년생 내 자신을 추스르세요. 85년생 자존심에 얽매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97년생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p> <p> 호랑이 50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62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74년생 실망이 크겠으나 참고 인내하세요. 86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p> <p> 토끼 51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합니다. 63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75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87년생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니 사람들이 따릅니다.</p> <p> 원숭이 52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겠습니다. 64년생 소송은 불길합니다. 타협하세요. 76년생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세요. 88년생 파트너와 불화 있겠습니다.</p> <p> 뱀 53년생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앞 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89년생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합니다.</p>	<p> 말 54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세요. 66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8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90년생 뒷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p> <p> 양 55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67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세요. 79년생 흑백을 가리키는 힘입니다. 91년생 지혜와 재치로 만민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p> <p> 원숭이 56년생 수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68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됩니다. 80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92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p> <p> 닭 57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69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릅니다. 81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3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p> <p> 개 58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법입니다. 70년생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82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94년생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다툼은 금물,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p> <p> 돼지 59년생 주위와 협동하세요. 71년생 무작정 벌인다고 성공할 수는 없는 법. 83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95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조심하세요.</p>
--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1	4	7	
		7	3		9			6	
	9			6			1		
	8		7	3	6				
		9	2		5				
3	7		5	8				9	
2		1			3				
1	4								

	8							6	
		2	6		3	5			
			5	9	8				
3		6				8			9
	2							5	
9		4				3			2
			1	7	2				
		7	8		4	1			
6									8

스도쿠 정답

5	9	2	1	6	8	7	4	3
8	1	4	9	3	5	2	6	7
1	6	7	8	5	2	1	9	3
7	8	5	1	2	6	9	3	4
6	2	9	4	7	5	8	3	1
3	1	2	9	7	8	6	5	4
9	5	6	2	1	4	8	7	3
2	7	1	5	8	9	2	6	4
4	3	8	6	1	7	9	2	5
1	8	2	6	5	1	9	7	3
5	4	1	7	9	8	2	6	3
9	7	6	2	1	5	9	8	4
2	1	4	9	8	7	5	3	6
7	5	9	1	4	6	8	2	3
6	2	8	5	7	9	1	4	3
1	2	1	8	6	5	9	7	3
8	6	5	1	7	9	2	4	1
3	9	7	1	2	6	8	5	4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희의四季

결혼이 늦은 것이 좋은 백호살 사주

여자가 직업이 있거나 하여 경제적 문제가 자력 적으로 해결되게 되면 남자에게 일생을 위탁하는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옛날에야 가족의 개념 자체가 경제공동체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존재 이유이기도 했던 것이어서 일정 나이가 되어 부모 밑에 있는 것은 몹시 불쌍사나운 일이었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짝을 만나지 못해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에 상담을 온 서너 명의 아가씨들은 한결 같이 좋은 직장을 가졌거나 재능이 뛰어나 프리랜서를 뛰고 있는 골드미스들이었다. 외모도 다들 빠지는 데가 없었다. 주변에서는 눈이 높아서 그런 거라고들 한다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그들의 결혼이 늦은 것은 본인들의 사주명조에 결혼이 쉽지 않은 기운이 함양 되어 있음을 일반적인 상식과 견해로는 파악해내기 쉽지 않다. 눈이 높다든 말 밖에 딱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 중의 한 아가씨는 75년생 9월이었는데 배우자 자리에 흉살이 자리 잡고 있는 백호살의 소유자였다. 지지에 형살도 있으니 자기 고집도 센 편이라고 봐야한다. 남자 집안 입장에서 꺼려하는 신살 중의 하나이다. 흰 호랑이의 강한 기운이 남편 자리를 우선적으로 친다는 통념 때문이다. 이 신 살이 남자에게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 발전이 있기도 하지만 가부장 사회에 있어서 여자에게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강한 신 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믿었기에 특히나 양반들은 사주를 미리 맞추어 보고 혼사를 정했던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해 생일을 살짝 바꾸는 일까지도 있었다 한다. 이 아가씨의 경우 결혼이 늦은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백호살의 기질로 인해 스스로도 강한 부분이 있지만 흑여 남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참지 못하고 강하게 분노하므로 부부간의 화합이 힘들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좀 더 나이를 먹고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좀 부드러워진 연후에 사람을 만난다면 성년 풀기가 좀 숨죽여진다. 다행히 내년부터 바뀌는 대운은 백호살을 설기시키는 기운이자 자신에게는 관운(官運)이 되니 분명 지금까지에 비해 매사 부드러워지는 모습으로 마음자리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모습에 주변에서도 사람을 소개시켜줄 인연도 생기는 것이니 결혼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공공기관 '2만3000명' 정규직 채용... 취준생 '주목'

채용공고 분석 결과 상반기 몰려
인원 절반 이상 1~3월 사이 뽑아
1분기 첫번째 채용기관 '도로공'
채용규모 가장 큰 기관 '철도공'

올해 공공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만3000명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전망이다. 특히 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인 1월~3월 사이 뽑을 계획이어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8일 올해 주요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정규직 채용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채용 문을 연 첫 번째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이다. 도로공사는 오는 12일까지 지원접수는 마감한다. 도로공사는 일반과 전문인력 부문으로 나눠 정규직을 채용한다. 일반 공채의 경우 행정직(경영·법정), 기술직(토목·건축·전기·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일정〉

기업명	규모	일정
한국도로공사	250명	01.03~01.12
한국철도공사	1,600명	1월예정
한국수자원공사	228명	2~3월예정
한국전력공사	1,586명	3월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274명	3~4월 예정

자료: 사람인



조경·기계·설비·전산·전자통신)에서 직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이 없으나 공인영어성적 1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또 기술직의 경우 선발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진 면접 및 인성검사, 경영진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인력공채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보보안전문가를 뽑는다. 분야별로 필수자격증을 보유해야하며,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에 이어 역량면접 및 인성검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가 진행된다. 합격자 근무조건은 월 240만 원 수준으로 일반 및 전문인력 공채 모두 동일하다.

공공기관 중 채용 규모가 가장 클 것으

로 예상되는 한국철도공사의 공채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1600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인성역량검사,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3월 5일까지 1586명을 선발하는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4월 1274명을 채용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월 중 552명을 채용하는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273명, 3월·9월 예정), 한국도로공사(250명, 1월·7월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252명, 3월), 한국수자원공사(228명, 2~3월 예정), 한전KPS(주)(222명, 3월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250명, 6월), 코레일네트웍스(주)(232명, 3월) 등이 200명 이상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101명, 2월), 한전 KDN(주)(164명, 3월·9월), 한국중부발전(주)(100명, 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93명, 3월), 한국공항공사(55명, 3월), 코레일관광개발(주)(120명,

3월) 등이 상반기에 공채를 진행할 예정이다.

IBK 기업은행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하반기에 직원을 채용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올해 8월과 11월 861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IBK기업은행은 오는 9월 219명을 채용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8~9월경 27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200명, 10월 예정), 한국동서발전(주)(166명, 10월 예정), 신용보증기금(100명, 9월 예정), 신용보증기금(100명, 9월), 한국동서발전(주)(166명, 10월),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533명, 8월·11월) 등이 하반기에 대규모 공채를 진행한다. 이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하반기 채용을 예정하고 있다.

자세한 공공기관 채용일정은 사람인의 '공공기관 채용일정'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저소득층 학업우수자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한국장학재단, 최종 217명 첫 실시
대출원금 30%·이자 총 3.4억 지급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욱)은 '2017년도 저소득층 학업우수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지원 사업'을 첫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첫 수혜자는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대학생 중 재단이 최종선발한 217명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 30%

와 이자에 해당하는 총 3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안양욱 이사장은 "정부 재원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민간 기부금 등을 융합해 대학생들에게 완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재단이 기부 받은 푸른등대 기부금의 운용수익으로 지원 대상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3분위

이하, 성적 80점 이상인 3~4학년 재학생이다.

푸른등대 기부금은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기부처별 지원 분야에 따라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부를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초등학교에서도 친하게 지내자”

2018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 예비 신입생들이 화관을 쓰고 서 밝게 웃고 있다.

연철뉴스



1급 장애인 우주연(50) 씨가 부산대에 2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부산대학교

“20년 전 가르쳐 준 부산대 학생에 감사”

1급 장애인 기부금 200만원 전달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미래에는 장애인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1급 장애인이 20년 전 야학에서 자신을 가르쳐 준 대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산대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8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해 21일 오후

1급 장애인 우주연(50) 씨가 부산대 자연과학대 생명과학과 약품 및 항체개발비 지원에 써달라며 200만 원의 발전기금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우 씨는 “장애인이 없는 꿈같은 미래가 현실이 됐으면 한다”면서 부산대 생명과학과 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기금을 전달했다.

우 씨는 이날 발전기금 외에도 올해 1월부터 매달 2만 원씩 자신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부산대에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우 씨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20년 전 ‘참배움터’라는 야학에서 부산대 학생을 만나 배움에 눈을 뜰 수 있었던 인연에 뒤늦게나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문을 연 참배움터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부산지역 야학으로, 부산대 인근에서 운영되면서 장애인들에게 문해 교육과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등의 교육을 진행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용수 기자

한양대, CES서 ‘스타트업’ 혁신제품 선포

한양대(총장 이명무)는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8(Consumer Technology Show)’에 참가해 한양대 스타트업의 혁신제품과 대학 우수기술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한양대는 지난 2016년부터 CES에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 박람회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 안경렌즈’, ‘IoT 스마트 화재방지 시스템’ 등 학생·동문 창업자가 개발한 7개 혁신제품과 대학 첨단기

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한양대 스타트업관은 테크웨스트 샌즈엑스포관 G홀에 위치한다.

유현오 한양대 창업지원단장은 “스타트업 기업의 CES 참가는 글로벌 시장에 직접 부딪히며 시장성을 검증해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CES와 같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기회를 지속 마련해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이상주 전 남가주한인약사협회 회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주) 사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자랑스런 경희인상’ 수상

경희대학교(총장 조인원)는 총동문회가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경희인상’ 수상자로 이상주 전 남가주한인약사협회 회

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주) 사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상식은 경희대 총동문회가 9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여는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79개 전문대 정시 입학정보 박람회 개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는 전문대학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 입학정보박람회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박람

회에는 전국 79개 전문대가 참가한다. 대학별 2018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상담과 특성화학과를 소개하고, 현직 진학지도 교사가 1대 1 진로상담도 진행한다.

박람회 기간 중 일부 대학의 경우 현장에서 응시료 없이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박람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입장료는 무료.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수험생은 먼저 본인의 적성과 소질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오면 도움이 된다”며 “취업 유망전공과 본인 성적으로 진학이 가능한 전공 등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정리해 상담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1987년 당시 대학생... 내 캐릭터 나도 미웠다”

스타인터뷰 영화 ‘1987’ 김윤식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악을 연기하려고 작정했죠. 제가 맡은 캐릭터가 끝까지 악하고 강해야 작품의 완성도와 몰입도가 높아질거라고 생각했죠. 누군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모든 것으로 희생해서 표현하고 싶었죠.”

‘타짜’의 아귀, ‘추격자’의 형사 그리고 지난해 ‘남한산성’ 속 김상헌까지. 다수의 작품에서 굵직한 연기를 선보여온 배우 김윤식이 영화 ‘1987’(감독 장준환)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하나였다. ‘잘하자’라는 것. 그동안 영화를 통해 보여줬던 어떤 역할보다 강한 인상을 관객에게 남겨 결말에 다다랐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자는 것이 목표였다.

지난 27일 개봉한 영화 ‘1987’은 스물두살 대학생이 경찰 조사 중 사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경찰과 권력 수뇌부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념을 건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광장의 함성으로 확산되기까지를 스크린에 펼쳐놓는다. 김윤식은 고문치사사건의 은폐를 지시하는 대공수사처 박처장으로 분해 완벽한 연기로 관객을 몰입시킨다.

인문사사회 당시 완성된 결과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김윤식. 그는 “실제로 1987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 노력만큼의 값진 성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고 입을 열었다.



영화 ‘1987’ 스틸컷

**고문치사 은폐 지시 박처장 역
제안받고 열과 성 다하겠다 다짐
하정우·김태리 등 배우 대거출연
‘짧은 역할’에도 충실해 감동받아**

“그 해 6월 부산에 있었죠. 그 당시에는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모이면 집회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험도 전부 레포트로 대체하고 그랬었죠. 막말로 그 당시 대학생 중에 대포 한 번 안해본 사람 없을 걸요? ‘운동권’이라는 미명 아래 모인 사람들만 대포한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1987년 대한민국은 ‘안개 낀 도시’였다고...”

김윤식이 연기한 박처장은 투박하면서도 서늘한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때론 눈빛, 권위와 신념이 읽히는 강한 인상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본인이 맡은 캐릭터이지만, 진심으로 미웠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을 때 작품 제안을 받았고, 온몸이 소진될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촬영에 돌입했다”며 “여느 다큐멘터리보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만들거라면 정말 ‘좋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자고 감독님과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물을 봤을 때 감독님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고, 고생하셨는지 알겠더라.”고 말했다.

영화 ‘1987’에는 김윤식,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외에도 이희준, 설경구, 강동원, 고창석, 오달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윤식은 “더 많은 배우가 ‘1987’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었다. 정말 짧은 순간 나오는데도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다. 아마 내가 박처장을 연기하지 않았더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참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우와는 ‘추격자’ ‘황해’에 이어 작품까지 함께 연기 호흡을 맞췄다. 업계에서 ‘김윤식-하정우의 조합은 항상 옳다’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

“배역의 분량으로 따지자면, 하정우 씨 분량 역시 많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꼭 같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정우

씨가 저와 쌍벽을 이루는 검사 역할을 맡아서 좋았고, 객관적으로 그 시대(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줘서 고맙습니다.”

김윤식은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 때문이었는지 촬영하기 힘들었던 장면도 있었다고 넌지시 입을 열었다. 전기고문의 자에 앉아있는 유해진을 바라보며 대사치는 장면에서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파 울컥했다고. 그럼에도 박처장을 인상적이게 연기해야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좋은 영화를 잘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종철 열사 30주기가 있었어요. 그때 직접 감독님과 부산에 찾아가 박종철 씨 누님을 뵙고 영화 제작에 대해 말했더니, ‘잘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가 나오면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역할에 몰입해야했죠.”

그 어떤 배우들보다 ‘완벽주의’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배우 김윤식. 항상 최선을 다해 최고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일 터. 앞으로 그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신원서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배우 김윤식 / CJ엔터테인먼트

컬링
강릉 컬링 센터(강원도 강릉시 교동 632)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어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 매우 복잡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므로 ‘빙판위의 체스’라는 별칭으로 불림

스톤
둘레: 91.44cm 이하
높이: 11.43cm 이하
무게: 최대 19.96kg
최소 17.24kg

손에서 떨어졌는지 확인 가능한 전자 장치가 있음
스톤 번호 표기

경기장 번호 표기

스코틀랜드 및 캐나다산 화강암 사용

컬링 경기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8, 2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자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연합뉴스

‘알까기’ 같지만 두뇌싸움 필요한 ‘빙판 위의 체스’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3 컬링

**20kg 스톤, 버튼에 가까운팀 승리
스위핑으로 진행 방향·속도 조절**

컬링이 국내에서 주목 받은 것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때다. 스톤을 투구하고 브룸으로 바닥을 닦아내는 다소 생소한 모양새는 언뜻 ‘알까기’ 같지만 실제론 치열한 두뇌싸움이 필요해 ‘빙판 위의 체스’로 불린다.

컬링은 빙판 위에 그려진 표적판(하우스) 중앙(버튼)에 약 20kg 무게의 돌(스톤)을 던지고, 양 팀의 스톤 중 버튼에 더 가까운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다. 스톤을 투구한 뒤에는 브룸으로 얼음

바닥을 닦아내며(스위핑) 스톤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조절한다. 선수들은 스위핑 동작을 하면서 5~10km 이상 거리를 이동하는데, 체중을 다 실어야 하기 때문에 팔과 등의 근력이 중요하다.

컬링 경기 시간과 환경만 생각해도 체력 소모는 상당하다.

컬링은 표면 온도 -4℃인 얼음 위에서 진행되는데, 경기를 한 번 치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다. 선수들은 추운 환경에서 팔, 땀만 아니라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며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심리전도 상당하다. 경기 과정에서 상대 팀 스톤을 막거나 쳐내기 때문에 작전과 심리전은 필수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스톤을 던져야만 한다.

따라서 팀간 단합과 소통도 중요하다. 컬링에서는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

전을 짜는 모습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서로 생각을 확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같은 소통이 경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들은 마이크를 차고 경기에 임한다. 선수들의 대화는 방송 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는 남·여 일반 컬링(4인조) 기준으로 10엔드(End)를 치르고, 믹스더블(혼성 2인조)은 8엔드를 치러야 끝난다.

각 팀은 한 엔드에 총 8개(믹스더블은 팀당 총 6개)의 스톤을 던지며, 양 팀은 번갈아가면서 투구한다. 한 팀에서는 보통 리드, 세컨드, 서드, 스킵(주장) 순서로 선수당 1개씩 두 번 던지면 한 엔드가 끝난다.

동계올림픽에서는 하루에 경기를 두 번 소화해야 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일정에 따르면 대부분 오전·오후 각

한 경기씩 치른다.

스위핑은 경기 시작 전 빙판에 뿌려져 작게 얼어붙은 얼음 입자(페블)를 닦아내 스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작업이다. 페블을 얼마나 많이 닦느냐에 따라 스톤의 활주 거리, 속도, 휘어짐이 결정된다.

이 얼음 상태를 경기 시간 내내 똑같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얼음 기술자 사이에서 컬링은 가장 까다로운 종목으로 꼽힌다.

한국 컬링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것은 2014년 소치올림픽이 처음이었다. 경기도형 여자컬링팀은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 첫 올림픽에서 3승 6패를 기록, 10개 팀 가운데 8위에 올랐다.

이번 평창올림픽에는 남·여, 믹스더블 전 종목에 출전한다. 국가대표팀은 모두 경북체육회 소속 선수들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31

1월 9일
음력 : 11월 23일

수도권 날씨
-5 ~ -7℃

연천 -7/-2
동두천 -7/-1
가평 -6/-2
파주 -8/-2
서울 -5/-1
양평 -5/-1
인천 -4/-2
수원 -4/-2
용인 -4/-2
평택 -5/0

백령도 -3/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이번 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장웅 북한 IOC 위원 간 협상의 핵심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선수단의 규모다. 역대 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 규모를 감안하면 평창에 올 선수단은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사진)이 지난 6일 인천 전자랜드와 경기에서 불거진 판정시비와 관련한 심판설명회를 KBL에 요청했다.



▲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임대기 신임 구단주 겸 대표이사 가 8일 취임식에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구단의 대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8시즌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개 대회에 총상금 약 207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새해 첫 대회는 3월 9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이다.

▲ 은퇴한 육상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32·자메이카)가 오는 3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구단 입단테스트를 받는다.

▲ 2017시즌 KBO리그 통합 우승팀 KIA 타이거즈가 2018시즌을 대비해 내달 1일부터 3월 8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에 돌입,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다.

▲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대전 시티즌은 베테랑 수비수 백중환과 미드필더 박수창, 고민성을 영입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9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서울역·세운상가·창신송인 등 가시적 성과 나타난 3곳 대상 파급효과로 인한 간접효과 커

서울시가 서울역, 세운상가 등 도시재생 사업으로 약 8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시와 민간주도 개발로 인한 직접고용효과와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포함된 규모다.

서울시는 8일 연세대 산학협력단(책임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에 의뢰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의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 중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 창신·송인이다.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는 ‘서울로 7017’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은 지난해 5월과 9월 각각 마무리됐다. 창신과 송인은 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지난해 말 마중물 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 일부 앵커시설은 올해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 투

구분	직접효과 (활성화 계획의 공공부문)			간접효과 (활성화 계획 외 민간부문)			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합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합계	
서울역일대	1,222	856	2,078	30,146	22,004(민간개발*)	52,150	54,228
세운상가	988	1,720	2,708	12,131	18,910(민간개발) 325(자율갱신**)	31,366	34,074
창신송인	177	169	346	-	45(자율갱신)	45	391
합계	2,387	2,745	5,132	42,277	41,284	83,561	88,693

표) *민간개발: 도시재생지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등 민간개발사업 추진지역 중 사업계획 내용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 자율갱신: 도시재생지역 지정시점('14.) 대비현재('17.) 시점에서 GIS 공간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축물 연면적 증감, 사업체별 종사자 등의 증감된 고용인원을 비교해 신규 고용 인원수를 파악. #건설단계: 일시적일자리. 운영단계: 지속적일자리.

입을 통한 공공사업(계획·건설·운영·관리 등)으로 인한 ‘직접고용효과’ 외에도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주도개발과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포함한 ‘간접고용효과’도 종합 분석한 결과라고 시는 밝혔다.

이같은 기준으로 볼 때 직접고용효과는 5132명, 간접고용효과는 8만35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효과는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공사하고, 사람을 고용해 발생한 효과를 뜻한다. 서울로 7017 운영인력(67명), 세운상가 메이커스

큐브 입주기업(50명), 백남준기념관 운영인력(16명) 등이다.

시는 공공의 마중물사업으로 인한 직접효과보다 민간개발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로 인한 간접효과가 16배 이상 컸다고 설명했다. 간접고용은 도시재생 효과가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며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상권이 살아나 나타나는 효과다.

이들 3개 지역의 고용창출효과를 투자비 10억원 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로 환산

한 결과, 직접고용효과(공공 마중물사업)는 21.38명, 간접고용효과(인근파급)는 19.38명이었다.

김갑성 교수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토목건축 위주의 주택개발·재건축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창출효과가 8.7명(2016년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기준)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도시재생의 고용유발효과는 21명 이상으로 2.5배 이상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건설단계

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물론 건설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직접고용효과를 보면 건설단계의 ‘일시적’ 일자리(2387명)보다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서 생겨나는 ‘지속적인’ 일자리(2745명)가 1.1배(35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일자리 유발효과를 조사·분석한 사례는 이번이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은 경제·사회·물리·환경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1세기형 도시관리방식으로, 저성장시대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이끌어내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연구에서는 물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주민과 공공 등 주체들 간의 협업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다양한 특화산업 유치에 따른 관광유발 효과 같은 비물리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면 일자리 유발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흡연 직장인 84% “건강위해 새해 금연!”

잡코리아 ‘금연 계획’ 설문 ‘담뱃값 부담’ 47% 뒤이어

흡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새해를 맞아 금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금연을 결심한 이유는 건강과 비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새해를 맞아 직장인 782명을 대상으로 ‘금연 계획’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 중 52.7%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금연 계획을 묻자, 84.2%가 금연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금연을 계획하는 이유는 ‘건강관리(80.7%)’, ‘부담스러운 담뱃값(47.0%)’, ‘흡연자가 환영 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18.4%)’ 등이었다.

담배를 끊는 방법으로는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 줄여가기(55.6%)’, ‘운동하기(28.5%)’, ‘병원, 금연치료 전문가 도움 받기(20.2%)’ 등의 방법이 나왔다.

흡연자들은 한 달 평균 10만8천원을 흡연에 사용하고 있었고, 하루 평균 흡연량은 ‘10개비~20개비 미만(33.5%)’, ‘5개

흡연 직장인 84% '새해 금연 계획'

※ 흡연 직장인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 잡코리아



비~10개비 미만(29.6%)’, ‘5개비 미만(26.5%)’ 등으로 다양했다.

‘중간 흡연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묻자,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2.3%가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들이 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는 ‘흡연 지정 구역(52.9%)’, ‘집, 회사 내의 계단이나 옥상(37.4%)’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잡코리아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견도 조사했다.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70.7%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비흡연 직장인(62.7%)에 비해 흡연 직장인(77.9%)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대선 찬성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지만, 흡연 직장인 그룹에서 반대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흡연 직장인(15.8%) 그룹이 비흡연 직장인(2.7%) 그룹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반대 입장을 밝힌 직장인들은 ‘개인공간(내 집)까지 관여하는 건 너무 심한 처사 같아서(64.0%)’, ‘실생활에서 개정안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26.7%)’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과반수에 해당 하는 찬성 입장은 ‘중간 흡연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서(61.4%)’, ‘가족, 지인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적어질 것 같아서(59.1%)’ 등을 해당 개정안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용수 기자 hys@

“중동여행 ‘메르스’ 주의하세요”

서울시 여행후 발열 등 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전 1339에 신고부터

서울시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메르스 감염 주의를 요청했다.

시는 중동지역 방문 후 2주 이내에 발열(37.5℃ 이상)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 전에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먼저 신고하라고 8일 당부했다.

1339로 신고하면 거주지 보건소와 연결해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신

속하게 증상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가 전국적으로 220명이 발생(전원 메르스 음성)했고, 이중 64명(29%)이 서울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중 36%(23명)는 1339로 먼저 신고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해 병원으로부터 신고된 사례였다.

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메르스 유입을 막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낙타 접촉과 낙타 부산물 섭취 삼가 ▲진료 목적 외 현지 병원 방문 자제(마스크 착용)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삼가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현지병원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지난해 국외 메르스 환자는 총 248명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236명, 아랍에미리트 6명, 카타르 3명, 오만 3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낙타접촉 등에 의한 1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국외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지역 방문 중에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여행 후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기 전 반드시 1339에 먼저 신고해 보건소를 통해 조치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제2여객터미널 이용 셔틀버스 안내문
오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개장을 앞두고 8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정류장에 출입국 이용 터미널이 다른 여행객을 위한 셔틀버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구청 소식

▲노원구, 이마트에 ‘월계행복발전소’ 조성

서울 노원구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이마트와 함께 ‘월계행복발전소’를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노원구 마들로3길 15 이마트 월계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14.29㎡ 규모로 들어서는 월계행복발전소는 다음달에 개관 예정이다. 이마트는 발전소 건축과 인테리어 공사, 도서와 내부비품 등을 지원한다.

▲마포구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 요원 모집

서울 마포구는 오는 16일까지 구정 정책과 경영,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목적은 관내 모든 사업체 분포와 고용 구조 파악이다. 조사 결과는 정책수립이나 평가, 기업 경영계획의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종로구, 새해 희망 담아 ‘2018 신년인사회’ 개최

서울 종로구가 9일 오후 2시 자하문로 AW컨벤션센터 ‘2018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종로구는 각계각층에서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는 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눌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건설을 위한 계획과 당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범중 기자





[유통]
온라인 고객도
놓칠 수 없다
진화하는 '백화점식품관'
13



[잡]
공공기관
'2만3000명' 정규직 채용
취준생 주목
17



7개월된 서울로7017, 걷기엔 '최고' 편의시설은 '글썸'

되살아나는 서울 ② 서울로 7017

서울시는 지금 변신중이다.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그 중심에 '서울로 7017'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로 7017은 오직 성장만을 믿고 의지하던 시대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었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낡은 고가를 철거하는 대신 사람이 다니는 보행길로 재생한 서울로 7017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장한지 7개월이 된 지금 서울로 7017은 여전히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한다.

지난 5일 서울로 7017은 점심 산책에 나선 직장인으로 가득했다. 동료와 벤치에 앉은 이모(48)씨는 발밑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서울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울로 7017 위에서 서울역을 내려다보았다. 옛 서울역이 아름다웠다. 뒤를 돌면 촛불의 거리 광화문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로 7017은 변신 전까지 '서울역 고가도로'로 불려왔다. 이곳은 1970년대 지어진 산업 근대화의 상징물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에서 만리동 1가62까지 연결한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인근 봉제공장 상인들이 물건을 나르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1990년대부터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철거와 재건의 기로에 서있던 서울역 고가도로는 2014년 서울시 도시 재생사업에 선정됐다. '교통보다는 안전, 그리고 사람이 1순위'라는 서울시 정책의 영향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도로의 안전문제가 차량의 하중 때문이라면, 사람길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보수나 보강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고가도로 재생에 힘을 실었다.

이에 서울시는 만리동·중림동·청과동 램프의 교량과 옹벽 일부(222m)를 철거했



① 인조틀림으로 꾸며놓은 서울로 2017. 밤이되면 틀림속 전구가 켜진다.
② 공사중인 '장미방수'매장
③ 반려나무 이름표.



[사진=나유리 인턴기자]

산책로 반려나무 이야기 등 발길 잡는 즐길거리 많지만 편의시설 공사 길어져 불편 지역과 연계도 아직 부족해

다. 대신 콘크리트와 교량을 보수·보강해 강성과 내구성을 높여 서울로 7017을 탄생시켰다.

이곳의 관전 포인트는 조경과 편의시설이다. 서울시는 자연지반 구간인 만리동과 퇴계로 주변에 키 큰 나무를 심어 도시 숲으로 가꿨다. 서울로 7017 산책로에는 원형화분을 배치해 수목식재 50과 228종 2만4085주를 심었다.

서울로는 원형화분에 심어진 나무 이름표를 보는 재미로도 유명하다. 이름표에 다양한 이야기가 적혀있기 때문이다.

'반려나무 입양' 제도 역시 화제를 모았다. 시는 '나무심기로 미세먼지를 해결하자'는 목표로 스타트업과 업무협약을 맺어 나무 입양 제도를 시행했다.

반려나무를 입양하면 서울로 7017에 나무가 심어진다. 그 옆에는 입양자의 이야기가 담긴 이름표도 세워진다. 한 시민은 "이야기를 읽다보면 길어보이던 산책길이 금방 끝난다"고 말했다.

산책로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도 시민의 발길을 붙잡는다. 서울로 7017의 편의시설은 관광안내소와 전시장, 카페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엄마와 함께 산책 나온 박모(9)군은 AR(증강현실) 화면으로 서울의 명소를 보여주는 호기심화분을 들여다보며 방긋 웃었다.

그러나 박군은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웠다. 서울로의 18개 편의시설 중 11개 시설은 이날 휴업으로 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운영되고 있는 7곳 중 5곳은 무인 시설이었고, 2곳은 유인 시설이었다.

서울로 7017 누리집을 보고 친구와 '수국식빵'을 찾은 대학생 김모(24)씨는 매장 앞의 휴업 안내판을 보고 "괜히 왔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문 닫은 11개 편의시설에는 '1월 1일까지 공사·휴업'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안내판에 적힌 공사 기한을 훌쩍 넘기도록 아무런 조치는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시설은 외주업체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1월 1일에 마감해야 하는 공사가 생각보다 길어져 1월 말쯤 돼야 공사가 끝날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로 7017 누리집에 별다른 휴업이나 올해 행사안내가 없는 데 대해서는 "아직 누리집 담당 직원이 1명밖에 없어 차질이 생겼다"며 "인력충원을 통해 누리집에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정치권에선 서울로7017이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빅데이터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보행 관련 정책 지지율은 90%를 넘는데 서울로7017의 지지율은 35%에 불과하다"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도 서울역과의 연계시스템이 안 돼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나유리 인턴기자]

